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털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292호 2025년 05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주네브 썬월드 메디컬동) 8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동포 지원 방안, 민과 관이 힘 모아 현장에서 찾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사회통합중앙협의회는 지난 4월 16일 안산시에 위치한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사단법인 너머'를 방문하여 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차용호 법무부 국제통합정책단장을 비롯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와 사회통합중앙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사단법인 너머'의 현장을 돌아보고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관련 기사 3면> 송하성 기자

(사)한국가족센터협회, 전국의 가족센터 종사자와 따뜻한 나눔 실천!



(사)한국가족센터협회(회장 윤성은, 사진)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가족센터 종사자들과 함께 최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돕기 위해 기부 캠페인을 전개해 총 54,488,000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이번 기부는 전국에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국가족센터 종사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자율적으로 참

여하여 조성한 것으로 산불피해 지역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산불의 피해가 컸던 경북 지역 소재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다수의 가정이 주택과 농경지 피해를 입었고 인명피해도 발생한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피난처 제공, 돌봄서비스, 긴급 생필품 지원 등 신속한 현장지원에 나섰다.

특히, 청송군 및 영양군 가족센터 종사자들은 산불 진화 현장에도 직접 참여하며 복구에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가족센터는 이번 기부금에 그치지 않고, 산불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돕기 위해 피해지역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가족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가족센터협회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인 전국의 가족센터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피해가족들의 또 다른 가족으로서 ‘가족의 회복과 안정성을 위해 실천하는 가족서비스 전문기관’의 역할을 감당하며, 위기 상황에 가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500여 가지의 다양한 가족 참여행사를 진행한다.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족센터가 5월

17일에 ‘5월 함께 DAY, 행복 DAY’를, 연천군가족센터가 5월 10일에 ‘제7회 5월 사랑 리마인드웨딩 with 백학’을, 여주시가족센터가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쑥쑥남남 아기클래스’를 진행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고궁, 전국 박물관과 휴양림 등을 활용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및 공연 등을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전국 가족센터에서 열리는 다양한 가족 체험 행사에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뜻깊은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언어별
지면 안내



섹션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안산 3~10 시흥 11~17 파주 18~21 부천 22~25 고양 26~27 광명 28~31 김포 32~36

중국어(Chinese) 中文 9, 18, 20, 34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6, 29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5, 13, 16, 24, 33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9, 29 영어(English) 13, 24 일본어(Japanese) 日本語 3, 33

정책 Policy 2, 4 생활정보 Information 2, 7, 10, 30, 35 나의 학습 My Study 21 도서관 Library 28, 36 보건 Health 11 행사 Event 5, 9, 25, 27, 36 여가 Leisure 14 이주배경청소년 7 비자 Visa 6, 33 교육 Education 7, 29 국제교류 17 고려인 3 외국인주민 14 주거 Residence 27 보험 Insurance 3, 13, 20, 29 출입국 Immigration 24 유학생 Foreign Student 16, 18, 33 범죄예방 34

상담, 심리치료, 주거지원 등...젠더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출범 1년...상담부터 주거지원까지 사각지대 해소해



젠더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체계인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대응단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젠더폭력 피해자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난 1년간 5만4,405건을 윈스톱 지원했다.

‘젠더폭력’은 물리적·환경적·구조적 힘의 불균형으로 비롯되는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모든 성적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젠더폭력대응단은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서 기존의 ▲1366경기센터 ▲디지

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스
토킹·교제폭력 피해대응센터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응센터를 통합해 지난
해 4월 30일 출범했다.

그동안 피해접수, 상담, 법률, 심리치료를, 주거 지원 등이 모두 개별적으로 이뤄져 피해자들은 수차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한 지역별, 분야별로 관할이나 예산이 분리돼 있어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 대상이 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했다.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이러한 칸막이를 최소화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도내 피해자 지원기관 111개소를 연계·조정해 이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상담·지원 등이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했다.

시군에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체

게인 ‘바로희망팀’을 구성해, 담당 공무원, 경찰관, 상담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으로 112 신고 접수단계부터 모든 지원 예산을 공유해 피해자를 지원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던 피해자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생계 도움을 요청한 사건에서 긴급 복지예산으로 이사비, 주택지원,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한 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지원한 대표적 사례다.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젠더폭력 피해자 2만2,628명에게 상담, 심리치료, 법률, 주거지원 등 총 5만4,405건의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했다. 출범 이후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모니터링, 삭제 등의 지원 건수는 기존 센터 운영과 비교해 월평균 1만6,371건에서 4만7,349건으로 증가했고,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은 월평균 21건에서 193건으로 대폭 늘었다.

그동안 지원이 불가능했던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300건, 심리·의료·생계 등 여러 분야로 나눠져 일부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복합 피해에 대한 지원이 117건 이뤄졌다.

사후적 피해 회복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도민대상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116회 실시하고, 도민예방단 89명을 위촉해 일상 속의 성범죄 의심 콘텐츠 감시와 인식개선 활동도 펼쳤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 이용 접근성도 높였다.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안심숙소를 12개에서 18개로 확대했으며, 365일 24시간 누리소통망(SNS)메신저 상담 등이 가능한 핫라인 전화(010-2989-7722)를 개설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경기북부지역 피해
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젠더폭력 통합대
응단 북부거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식품과 생활용품도 기부받아요

경기도 푸드뱅크, 신선 농산물 가장 선호

경기도가 푸드뱅크를 통해 식품뿐만 아니라 세제와 휴지 등 다양한 생활용품도 기부받고 있다며, 도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푸드뱅크·마켓은 취약계층에 기부물품을 무상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는 78개 기초 푸드뱅크·마켓이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푸드뱅크 이용자들의 수요가 점차 세분화·다양화됨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선호도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3월 푸드뱅크 이용 개인·단체 대표 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푸드뱅크 이용자 대상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9개 대분류 유형에서는 신선 축산물이 14.7% 신선 농산물이 12.3%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각 1·2위를 차지했다.

71개 소분류 품목(복수 응답 가능) 가운데에서는 '세제류'가 61%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지류는 7위(53%), 신체 위생용품류(치약, 칫솔 등)는 19위(44%)를 차지했다. 최근 지속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생계

비 부담이 커진 상황 속에서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푸드뱅크’라는 명칭으로 인해 식품만 기부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 2024년 한 해 동안 기부받은 총 691억 원 중 식품이 608억 원(88%)을 차지한 반면 생활용품은 83억 원(12%)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생활용품은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이
라면 누구나 쉽게 기부할 수 있으며, 기
부 가능한 품목으로는 세제류(샴푸, 린
스, 세탁용·주방용 세제 등), 휴지류(화장
지, 물휴지), 신체 위생용품류(치약, 칫솔,
면도용품 등), 청소·환경 위생용품류(고무
장갑, 수세미 등), 수건류(수건, 행주 등)
여성 위생용품류(생리대) 등이 있다. 기
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기부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물품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경기광역푸드뱅크 누리집(kg1377.or.kr) 또는 대표전화(031-294-1377)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이지는 기자

경기도 내 푸드뱅크·마켓과 따뜻한 나눔을 함께해요!

푸드뱅크·마켓은?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생활용품 등을 긴급생계위기가, 독거노인 등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나눠드리는 사업입니다!

기부

기부 혜택

손비차리 혜택
기업 이미지 제고
폐기 비용 절감

기부 문의

대량기부(5t이상)

☎ 031-294-1377

소량기부

☎ 1688-1377

이용

이용 대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 긴급생계위기가
-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탈북자
- 기타지원이 필요한 자

이용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물품은 나누고, 사랑은 채우고, 행복은 더하고!



'동포 지원 방안' 현장에서 찾는다

법무부, 사회통합중앙협의회와 동포체류지원센터 방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사회통합중앙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안산시에 위치한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사단법인 너머'를 방문하여 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차용호 법무부 국정통합정책단장을 비롯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와 사회통합중앙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사단법인 너머'의 현장을 돌아보고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가졌으며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단법인 너머는 성인 한국어 교육, 초등저학년 돌봄과 방과 후 교실, 자원봉사단 운영, 전국 고려인 문화센터 지원, 고려인 네트워크 지원사업, 고려인 미래세대 장학사업 및 법률·노동 관련 상담소 운영 등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차용호 법무부 국정통합정책단장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3명 중 1명이 동포”라며 “오늘 간담회는 동포에 포커스를 맞췄다. 사회통합협의회와 함께 방문해 동포 사회에 대해 배우고 논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준호 사회통합중앙협의회 회장은 “동포 자녀 아이들이 희망을 키우며 즐겁게 공부하고, 한국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회통합중앙협의회도 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

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신은철 사단법인 너머 대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사회통합중앙협의회에서 우리 단체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방문과 후원으로 더 많은 동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동포가 없도록 더 부지런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사회통합협의회와 동포체류지원센터 연계 협력 방안 ▲사회통합중앙협의회 활성화 방안 ▲동포체류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간담회 이후에는 사단법인 너머에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후원금과 동포 자녀 장학금, 후원 물품(돌봄 아이들 단체복, 간식 등) 등을 전달했다.

한편, 사회통합위원은 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민간 자원봉사자로 사회통합중앙협의회는 전국 17개 사회통합지역협의회 회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이병길 안산사회통합협의회장은 “전국의 사회통합협의회장님들이 안산을 방문해 주시고 동포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京畿道では外国人住民も「気候関連
疾病・傷害」補償を受けられます！
京畿道 全国初の「京畿気候保険」施行

京畿道が全国で初めて気候保険を施行しました。京畿道は11日、ハンファ損害保険コンソーシアム(農協損害保険、エース損害保険)と契約を締結し、来年4月10日まですべての京畿道民の気候関連疾患と傷害に対して補償を行うと発表しました。

気候危機から道民の健康と安全を守るために施行される「京畿気候保険」は、 ▲温熱疾患・寒冷疾患診断費 ▲感染症診断費 ▲気象特報関連4週間以上の傷害時、事故慰労金を定額保障します。登録外国人を含め、すべての京畿道民は、別途の手続きなしで気候保険に自動加入され、気候関連の健康被害に対して保険金を補償される仕組みになっています。

例えば、外国人季節労働者が京畿道で夏に仕事をして倒れた場合、温熱疾患診断費(年1回限定)10万ウォンを支給されます。 冬に凍傷などの被害を受けた場合にも寒冷疾患診断費10万ウォンが支給されます。

特に韓国人の気候脆弱階層(市郡保健所訪問健康管理事業対象者)16万人余りは、基本保障項目に加え、 ▲温熱疾患と寒冷疾患の入院費(1日10万ウォン) ▲気象特報時の医療機関交通費 ▲気候災害時の救急車搬送費 ▲気候災害の精神的被害支援が追加で保障されます。

京畿道民であれば、韓国内の事故発生地域(ソウルや済州など)に関係なく、約款に保障する事故被害を保障し、被害道民は事故発生日から3年間さかのぼって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保険金請求は、被害県民が請求書類を揃えて、京畿道が契約した保険会社(ハンファ損害保険、コールセンター02-2175-5030)に直接申請し、申請件は保険会社が書類を審査し、受付後3日以内に保険金を支給します。

京畿道は、春・秋季のツツガムシなどのダニ媒介感染症、夏季の猛暑による温熱疾患と冬季の寒波による寒冷疾患、その他大雨・大雪・山火事などによる事故など、道民が様々な気候関連被害の支援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と期待しています。京畿道気候環境エネルギー局の関係者は「予測できない気候変動で、道民の皆さんが関連する病気や事故がないことが一番ですが、もし「京畿気候保険」が保障する内容の健康被害がある場合は、必ず申請して保険の恩恵を受けてほしい」と述べました。

京畿気候保険の保障内容や申請方法など詳しい内容は、京畿道ホームページ([www. gg. go. kr/gg_insure](http://www.gg.go.kr/gg_insure))を通じて確認できるほか、代表コールセンター(02-2175-5030)または環境保健安全課(031-8008-4242)を通じて案内を受けられます。

〈한글 기사 20면〉

파파야스토리

이주배경 인구 10만 시대, 안산시 '상호문화도시'로 미래 준비

안산시, 외국인 주민과 상생하는 상호문화도시 조성...국제도시 안산 위상 높인다



이주배경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선 안산시가 '상호문화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국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과 문화교류 확대 등을 위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4월 16일 오전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4월 언론브리핑에서 '상호문화를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국제도시 안산'을 주제로 안산시의 이주 배경 인구 현황과 상호 문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 점차 중요해지는 상호문화 정책

지난 2022년 통계청에서 밝힌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42년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4,963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이주배경인구는 220만 명에서 2042년에는 404만 명으로 약 84% 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안산시는 이러한 인구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올해 3월 기준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118개국 10만0,58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9%를 차지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외국국적동포 비율이 가장 높고, 지난 2008년 대비 외국인 주민 수가 세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들을 포용하고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안산시는 외국국적동포 등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 '상호문화 상록센터' 조성 추진

안산시는 지난 2020년 유럽평의회로부터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에는 중장기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상호문화도시로의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시설 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힘을 모으고 있다.

우선, 이주배경 인구의 증가에 발맞춰 다양한 문화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상호문화 상록센터'를 상록구 사동 주민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조성한다. 오는 2027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호문화 상록센터'에는 상담실과 한국어 교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또한, 2009년 지정된 다문화마을특구는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특성을 활용한 로컬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로컬디자인 특화 시설물 설치 외에도 다문화마을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안산 글로벌다문화센터 2층과 3층에 각각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글로벌청소년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한국 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고려인 문화센터(단원구 지곡로6길 37)는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상담, 고려인 주민 자녀 교육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상생하고 교류하는 국제도시 실현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들의 사회 적응 외에도 내·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상호 교류의 장을 지속 마련, 상생하고 교류하는 국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8개국 13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주민협의회와 11개국 30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주민 모니터단을 각각 운영해 외국인주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교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태권도 아카데미와 시범단 등의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안산시 세계소년소

녀합창단은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안산시는 5월 17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 다양한 국가의 이주민들과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

올해는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 부서를 설치한 지 20주년이자 상호문화도시 지정 5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해다. 안산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평의회 사무국을 비롯해 일본 하마마츠시를 포함한 해외 상호문화도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문화 정책의 미래비전과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상호문화주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확산하고 내·외국인 주민 간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상호문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제1호 상호문화도시로서 모든 구성원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4일 고려인 동포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가 화랑유원지에 전국 최초로 설치됐다. 이는 고려인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기리고 다양한 배경을 포용하며 살아가는 안산시는 공동체 정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뜻깊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억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안산시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상호문화도시로서, 모든 주민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과 문화교류 기반을 강화해 '국제도시 안산의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안산시, 별빛광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어린이날 축제...다양한 즐길거리 마련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5월 5일 별빛광장(광덕서로 10)에서 '제103회 어린이날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꿈이 자라는 아이, 희망을 꿈꾸는 안산'을 주제로 온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공연, 놀이 프로그램들로 마련된다.

축제는 식전행사인 발달장애 아동 및 성인으로 구성된 하트아트 합창단의 무대공연으로 시작된다. 이후 ▲

모범어린이와 아동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청소년 댄스팀 공연 ▲줄넘기 퍼포먼스 ▲버블벌룬 매직쇼 ▲전통놀이 체험 ▲장기자랑 ▲랜덤플레이댄스 경연대회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플로깅(줍깅) 캠페인으로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장에는 ▲체험부스 ▲놀이존(에어바운스 등) ▲포토존 ▲피크닉존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

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함께 운영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축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가족 중심의 축제로 기획했다"라며 "아동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 더해 안전한 축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 당일 오전 시에는 별빛광장 대신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거리에서 만난 예술, 세상을 잇다'...내외국인 함께 하는 거리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5월 3일 개막...123개 공연팀이 참가해 136개 프로그램 선보여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개최한다.

'거리에서 만난 예술,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총 123개에 달하는 공

연팀이 참가해 136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005년에 시작,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지난 축제들에 비해 관람객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중성을 염두에 두고 기획됐다. 대중성이 짙은 거리예술 공연을 위주로 그 어느 때보다 재미와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개막 공연으로는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합창 '모두 함께 한 걸음' ▲국내 최초로 예술무대를 기반으로 불을 이용해 춤을 추는 장르를 연구 개발한 '예화 플레이밍 파이어'의 불 퍼포먼스 '열정의 조각' ▲대한민국 대표 스트리트댄스 전문 예술 단체인 '갬블러크

루'와 대한민국 대표 여성 락킹팀 '롤링 핸드즈'가 함께 선보이는 스트릿 댄스 '스트릿 온 더 탑'이 펼쳐진다.

폐막 공연은 대한민국 대표 마술사 이은결이 나선다. 이은결 마술사는 환상적인 마술쇼 '일루전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안산문화광장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대형 불꽃놀이 '환상 불꽃'으로 축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폐막 공연 외에도 ▲거리예술 전문 단체들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공식 참가작' ▲안산의 이야기를 선보일 '제작 지원 프로그램' ▲시민들이 공연자로 참여하는 '시민 버전' 등을 운영한다.

안산시는 어린이와 청소년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공연과 대형 쉼터 공간에서 진행되는 인디 뮤지션들의 버스킹 '뮤직 스트리트', 대형 캐릭터 에어벌룬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거리미술'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박종홍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함께 시민들의 시선과 눈높이에 맞추어 직접 기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안산의 일상이 예술로 물드는 특별한 5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Корейский ведущий фестиваль уличного искусства пройдет с 3 по 5 мая в Ансане!

Крупнейший фестиваль уличного искус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Анса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уличного театра» – активно готовится к своей 21-й встрече с публикой.

Город Ансан (мэр Ли Мин-гын)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ил программы 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21-го Анса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 уличного театра»,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в течение трёх дней — с 3 по 5 мая.

Анса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уличного театра, начиная с 2005 года, проводится ежегодно в мае с целью задействовать город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Ансана и вдохнуть энергию в регион. Фестиваль является глав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города и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йоне культурной площади Ансана, превращая городские улицы в сцену, даря гражданам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впечатления и необычный повседневный опыт.

«21-й Анса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уличного театра» под слоганом «Искусство, встречающееся на улице, соединяет мир» ставит своей целью объединение искусства и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и. ▲Фестиваль, объединяющий все возрастные группы – детей, подростков, студентов,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е семьи и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Фестиваль, реализуемый при участии и размышлениях мест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Фестиваль, стирающий границы и объединяющий всех –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н станет ярким началом мая.

Особенностью этого года станет создание пространств и программ, адаптированных к разным группам, где граждане смогут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друг с другом.

Кроме того, в этом году фестиваль представит 2 спектакл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и постановок, раскрывающих истории Ансана – «Ансан Рисерч», а также 136 представлений и программ с участием ведущих отечественных уличных театров.

Музыка, танцы, иллюзионные перформансы!

Открытие фестиваля 3 мая на культурной площади Ансана будет состоять из трёх постановок.

Во-первых, хоровой ансамбль студентов факультета прикладно

й музыки Сеу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искусств — одного из луч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в области искусства — исполнит «Все вместе, один шаг», воспевая страсть объединения «Ансана» своим обнадёживающим голосом.

Впервые в стране на сцене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гня выступит «Yehwa_Flaming Fire» — коллектив, танцующий с огнём. Они представят танцевальную постановку «Фрагмент страсти» с огненными эффектами перед зрителями.

Завершит открыти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т ведущего стрит-денс коллектива Кореи «Gamblerz Crew» и женской команды по локингу «Rolling Hands». Их шоу «Street On The Top» наполнит Анса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уличного театра энергией.

Особенно в этом году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программы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реквизита, чтобы все зрители могли наблюдать за выступлениями с ещё большим интересом и удовольствием.

Также планируются программы с участием граждан, такие как: «Гражданская версия», где сами горожане станут артистами и пока

жут различные перформансы; «Программа активации торговых зон» с выступлениями на тему нанта и саксофона; «Музыкальная улица» для любителей уличной музыки; «Молодёжный арт-маркет» в формате интерактивной ярмарки, где граждане и художники смогут объединиться и весело провести время.

Между тем, финальным аккордом трёхдневного праздника 5 мая, в День детей, станет вечернее шоу иллюзиониста №1 в Кореи — Ли Ын-гёля. Его «Иллюзионный перформанс» продлится 40 минут. После фееричного выступления завершит фестиваль грандиозный фейерверк «Фантастический огонь», который озарит культурную площадь Ансана.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желающие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фестивале, могут прийти на культурную площадь Ансана в любое время с 3 по 5 мая. Всего 136 представлений и программ, включая 27 официальных постановок, подарят вам радость и удовольствие. ansanfest.com

〈한글 기사 지난호 5면〉

파파야스토리

‘Dự án thí điểm cấp visa đô thị’ nhằm tạo điều kiện cho nhân lực có chuyên môn và du học sinh có thể dễ dàng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Vào ngày 2 tháng 4 vừa qua, Bộ Tư pháp đã công bố ‘Dự án thí điểm cấp visa đô thị’, đây là một trong những nhiệm vụ quan trọng trong ‘Chính sách nhập cư mới’. Theo kết quả đánh giá của ‘Ủy ban xét duyệt visa đô thị’, tổng cộng có 14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đã được chọn làm mục tiêu cho Dự án thí điểm cấp visa đô thị lần này.

Nói một cách đơn giản, Dự án thí điểm cấp visa đô thị là dự án mà Bộ Tư pháp thực hiện với phương châm nói lỏng các điều kiện về cấp visa tại các khu vực nhằm giúp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muốn làm việc tại các khu vực đó có thể dễ dàng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hơn.

Ví dụ, đối với Tỉnh Gyeonggi, nơi đang cần nhân lực trong lĩnh vực công nghệ công nghiệp, thì những lao động người nước ngoài trong lĩnh vực này sẽ có thể được cấp visa và nhập cảnh vào Tỉnh này, và các điều kiện về cấp visa như trình độ học vấn hoặc kinh nghiệm làm việc liên quan cũng chỉ được nói lỏng đối với Tỉnh Gyeonggi.

*** Dự án cấp visa đô thị được thực hiện như thế nào?** : Bộ Tư pháp đã có công văn xét tuyển kế hoạch cho dự án lần này đối với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trên toàn quốc từ tháng 12 năm ngoái đến tháng 2 năm nay và xây dựng kế hoạch dự án chi tiết thông qua việc trao đổi với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đã nộp kế hoạch dự án. Nói cách khác, Bộ Tư pháp và các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đã cùng nhau lập nên ‘Hệ thống visa đô thị’. Bộ Tư pháp hy vọng rằng điều này sẽ giúp ổn định về mặt định cư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như phục hồi nền kinh tế địa phương. Và Dự án thí điểm visa đô thị này cũng đã bắt đầu từ ngày 2 tháng 4 vừa qua.

*** Những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nào tham gia Dự án cấp visa đô thị?** : Có 10 chính quyền đô thị (Seoul, Busan, Incheon, Gwangju,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và Jeju) đã nộp kế hoạch Dự án cấp visa đô thị dành cho du học (D-

2) và 6 chính quyền đô thị (Daegu, Daejeon, Ulsan, Gyeonggi, Gyeongbuk và Gyeongnam) đã nộp kế hoạch Dự án cấp visa đô thị dành cho lao động chuyên môn (E-7). Visa lao động chuyên môn (E-7) với tổng cộng 87 ngành nghề trong ba Nhóm ngành nghề chính là ngành nghề chuyên môn (E-7-1), ngành nghề bán chuyên môn (E-7-2) và ngành nghề cơ bản (E-7-3), và không bao gồm lao động lành nghề (E-7-4) theo hệ thống tính điểm.

*** Dự án cấp visa đô thị đối với Visa E-7 được thực hiện như thế nào?** : Visa lao động chuyên môn (E-7) đã được chọn làm mục tiêu cho dự án thí điểm tại 4 chính quyền đô thị (1.210 người) với các điều kiện về visa được nói lỏng theo nhu cầu liên quan đến các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công nghiệp tại những khu vực địa phương này.

Đầu tiên, là Daegu. Bộ sẽ nói lỏng yêu cầu về trình độ học vấn và nghề nghiệp đối với các doanh nghiệp tuyển dụng lao động chuyên môn thuộc “5 lĩnh vực công nghiệp mới của Daegu” như khoa học đời sống và robot, v.v.

Đối với Tỉnh Gyeonggi, sẽ nói lỏng các điều kiện về học vấn khi tuyển dụng lao động chuyên môn có trình độ tiếng Hàn cao trong lĩnh vực khoa học kỹ thuật và chuyên gia dữ liệu/mạng, v.v.

Đối với Tỉnh Gyeongbuk, cũng sẽ nói lỏng các điều kiện về học vấn đối với sinh viên tốt nghiệp ngành khoa học và kỹ thuật từ các trường cao đẳng nghề ở nước ngoài, và Tỉnh Gyeongnam cũng đã quyết định sẽ nói lỏng các điều kiện về nghề nghiệp đối với lao động chuyên môn làm việc tại các công ty con ở nước ngoài trong ngành sản xuất.

*** Dự án cấp visa đô thị đối với Visa D-2 được thực hiện như thế nào?** : Đối với Visa du học (D-2), có 10 chính quyền đô thị (4.420 người) đã được chọn làm mục tiêu của dự án thí điểm qua việc đề xuất nói lỏng về điều kiện cấp visa liên quan đến các ngành công nghiệp ưu tiên tại địa phương.

Đầu tiên, đối với Seoul, Busan, Gwangju, Gangwon,

Chungcheongbuk và Chungcheongnam, nhằm bồi dưỡng nhân tài trong các ngành công nghiệp tiên tiến như chất bán dẫn, robot, AI, pin thứ cấp và công nghệ sinh học, v.v., sẽ tiến hành nói lỏng các điều kiện về tài chính khi cấp visa du học thuộc các chuyên ngành liên quan (trừ Seoul). Ngoài ra, đối với Seoul, Gangwon, Chungcheongbuk và Chungcheongnam, cũng sẽ thực hiện mở rộng giờ làm việc bán thời gian. Ngoài ra, một số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khác (Busan, Incheon, Gangwon và Jeollanam) cũng đã quyết định sẽ cho phép thực tập trong thời gian học kỳ.

Đối với Jeonbuk, Jeonnam và Jeju, sẽ nói lỏng điều kiện về tài chính khi cấp visa du học nhằm giúp đảm bảo nguồn nhân lực cho các ngành công nghiệp trọng điểm trong khu vực như ngành công nghiệp gốc, ngành du lịch, v.v., bên cạnh đó cũng sẽ thực hiện mở rộng giờ làm việc bán thời gian cho các bạn du học sinh, trong đó, Tỉnh Jeonnam sẽ cần xin cấp giấy phép khi muốn tăng giờ làm việc bán thời gian.

Đối với Incheon, thời hạn lưu trú tối đa đối với sinh viên theo học tại các điểm trường trong nước sẽ được kéo dài (từ 1 năm lên 2 năm) nhằm tạo điều kiện cho các bạn du học sinh có thành tích xuất sắc.

14 chính quyền đô thị được tuyển chọn thông qua Ủy ban xét duyệt trong lần này sẽ triển khai Dự án thí điểm cấp visa đô thị cùng với với Bộ Tư pháp cho đến năm 2026.

Và để đảm bảo chính sách visa đô thị được thực hiện một cách hiệu quả hơn, Bộ Tư pháp cũng có kế hoạch sẽ tiến hành đánh giá hiệu quả với những yếu tố như ▲ Tỷ lệ đạt hạn ngạch visa đô thị ▲ Tỷ lệ tham gia Chương trình hội nhập xã hội ▲ Tỷ lệ lưu trú bất hợp pháp ▲ Tỷ lệ người nước ngoài cư trú trong khu vực, v.v., để có thể điều chỉnh hạn ngạch visa trong trường hợp cần thiết và quyết định có tiếp tục dự án hay không.

〈한글 기사 지난호 13면〉

과과야스토리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기부-중진공이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사업을 본격 수행합니다.

한국어 교육, 인턴십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취업역량 제고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사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및 현장 프로젝트 등 실무 경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견문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내용

중기부와 중진공이 각 대학교에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

선정된 대학교(총 10개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성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동명대학교	서경대학교	선문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우송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선정된 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1단계	중소기업의 이해, 한국어 교육
2단계	인턴십, 현장실습 또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중소기업 취업연계 및 인력난 해소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우리 중소기업 현장에 외국인 인재가 적시·적재·적소 공급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 모집해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5월 14일까지 '2025년 제1차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와 함께 진행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취약계층 주민이 자신의 여건과 교육 수준에 맞춰 자율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인 등 유형에 따라 구분해 신청받는다. ▲일반(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청년(19세~39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디지털교육 수요자(30세 이상) 등이 대상이며, 이번 모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2명과 등록장애인 134명 등 총 736명을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반 평생교육이용권의 경우 PC나 핸드폰을 통해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보조금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중증 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평생학습과(단원구 고잔로 28)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과 노인, 디지털 교육분야 평생교육이용권은 오는 6월 접수 예정이다.

문의 1544-6500 김영의 기자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시흥 능곡고와 난민공동체 위한 나눔캠페인 개최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이승미)는 시흥능곡고등학교 동아리 '우리마을탐구반'과 함께 난민공동체 자조모임 '다이나믹 우먼(Dynamic Women)'을 위한 기부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4월 26일 열린 나눔바자회를 위한 기부 물품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마을탐구반' 소속 학생들의 자발적인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행사다.

동아리 학생들은 캠페인 기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난민 인권 보호 및 기부 활동 독려 포스터를 제작해 게시하는 등 꾸준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약 220명의 학생이 라면과 통조림, 생필품 등을 기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물품 전달식은 4월 24일 시흥능곡고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와 난민공동체 '다이나믹 우먼'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해 기부에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달식 현장에는 시흥능곡고에서 직접 준비한 현수막인 <함께 행복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 난민 인권 보호>가 게시돼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다이나믹 우먼'의 샤롯데니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들의 따뜻한 마

음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난민들에게는 생필품, 특히 식료품이 가장 절실하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승미 센터장은 "시흥능곡고 학생들의 지속적인 연대는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큰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주민과 지역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난민공동체의 자립을 돕기 위해 연간 3~4회 나눔바자회를 운영하며, 바자회에 활용될 기부 물품을 상시 후원받는다.

작은 나눔이 큰 희망이 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기부 문의는 031-599-1773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장윤정 경기도의원, "경기안산1교, 다문화 학생 위한 실질적 교육기관 되길"



안산 대부도 지역(단원구 대부남동 산 126번지)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가칭)경기안산1교가 오는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이 추진된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3~24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심사에서는 ▲지역주민 시설 개방 등에 따른 학생 안전 대책 ▲남여 기숙사 위치 적정성 검토 ▲안산시와 경기도의 지원 계획의 구체화 등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영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가칭)경기안산국제학교로 설립하려 했으나, 학교 운영 방향과 골프, 요트, 승마와 같은 고급화된 교육

활동에 우려가 제기되면서 학교 설립의 최종 관문인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가칭)경기안산1교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윤정 의원은 "(가칭)경

기안산1교는 다문화 배경 청소년을 위한 통합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며 "특히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정서·문화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경기도와 예산 지원 관련 협의를 마친 뒤 안산 대부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8월부터 학교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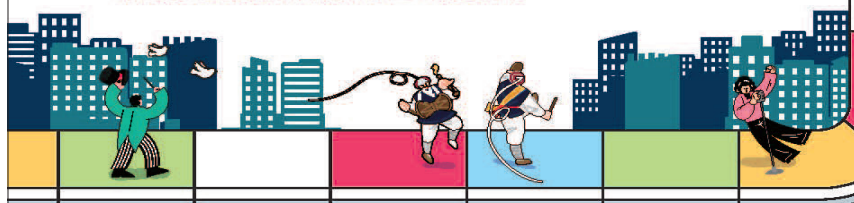


거리에서 만난 예술, 세상을 잇다

2005년부터 매년 5월에 열리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거리와 광장을 무대로 하여 '안산'이라는 도시를 공공공간예술로 가득 채워왔습니다. 늘 걷던 거리와 풍경으로 무미건조해진 일상 속에서 찰나의 경이로운 순간을 찾아 헤매던 우리에게 다채로운 예술의 감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산의 이야기를 발굴한 제작지원프로그램인 <안산리서치> 공연 2편과 더불어 국내 유수한 거리공연예술단체와 함께 합니다. 그동안 거리의 한편에 머물러 있었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강화와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위한 생태친화적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대의 공간으로써 모두에게 열린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다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공연프로그램

개·폐막작 축제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기대와 기약을 남기는 공연
공식참가작 축제의 정체성을 담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공연
거리예술제작지원 안산을 담은 시선과 이야기를 선보이는 제작공연

기획프로그램

어린이공간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놀이터 'YES키즈존'
청소년공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들의 문화를 담은 공간
술속유희 축제 공간 한켠에 자리한 숲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뮤직 스트리트 버스커와 음악 애호가를 위한 특별한 장소
시민버전 시민이 예술가가 되어 공연하는 지역시민 참여 프로그램
커뮤니티텐트 거리예술 아티스트와 관계자들이 함께 교류하고 네트워킹 하는 공간

부대프로그램

청년예술마켓 안산 청년의 창작물을 선보이고, 시민과 공유하는 소통형 아트플리마켓



www.ansanfest.com
@ansanfest



찾아오시는 길

고잔역, 중앙역 사이 안산문화광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7

4호선 수인분당선 고잔역 2번출구 도보 15분(800m)
 4호선 수인분당선 중앙역 2번출구 도보 15분(800m)

2025. 5. 2.(금) 00:00~2025. 5. 6.(화) 05:00
 안산문화광장 교통통제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2025 안산페스티벌 안산을 함께 누려요

- 장애인 날 기념식 2025. 4. 17. (목) 올림픽기념관
- 노동자 음악대축제 2025. 4. 25. (금) 화랑유원지
- 자전거대축전 2025. 4. 27. (일) 호수공원
- 어린이날기념행사 2025. 5. 5. (월) 별빛광장
- 세계인의 어울림한마당 2025. 5. 17. (토) 화랑유원지
- 열정유 2025. 5. 31. (토) 화랑유원지
- 안산시민 환경한마당 2025. 5. 31. (토) 안산문화광장

韩国代表性街头艺术节将于5月3日至5日在安山举行！

安山国际街头剧庆典，由136个演出和节目组成... 点燃庆典热情 안산국제거리극축제



韩国的代表性街头艺术庆典“安山国际街头剧庆典”正在加紧准备与观众的第21次见面。

安山市(市长李民根)正式发表了5月3日至5日为期3天的“第21届安山国际街头剧庆典”的演出和节目内容。

安山国际街头艺术节自2005年开始举办，旨在利用安山的城市特性，为地区注入活力，是每年五月举行的安山市代表性节庆活动。

以安山文化广场一带为中心，以市中心街道为舞台，为市民带来艺术感动和日常生活中的特别体验。

第21届安山国际街头艺术节以“在街头遇见艺术，连接世界”为口号，致力于打造艺术与日常相连的节日。▲儿童和青少年、大学生、多文化家庭和外国居民等全阶层融合的庆典▲与当地社区共同思考与推动的庆典▲打破界限，共同参与的庆典，预期为五月的开始增添丰富色彩。

特别是，今年节日为各个年龄层量身打造专属空间与节目，创造让市民共同参与和呼吸的场所。

与此同时，今年的庆典在发掘安山故事的制作支援节目《安山调查》的2部演出基础上，还计划推出国内屈指可数的街头艺术演出团体参加的136个演出和参与节目。

音乐和舞蹈，还有表演！

5月3日在安山文化广场闪耀的开幕作品有3个。首先，由培养出最优秀艺术家的首尔艺术大学实用音乐系学生组成的重唱组的“大家一起迈出的一步”，用充满希望的声音演唱了融为一体的“安山”的热情。

国内首次以艺术舞台为基础，利用火跳舞的《礼花_Playming Fire》将与烟花一起，将舞蹈作品《艺火Flaming

Fire》展示在观众面前。当晚的压轴节目由大韩民国代表街舞队“Gambler Crew”和代表女性摇滚乐队“Rolling Hands”联手打造的《Street on the Top》，将为安山国际街头艺术节注入火热能量。

特别是，今年的节目更增加了各类道具表演项目，让观众能够更加有趣且沉浸地享受演出。

另外，还有让市民化身为艺术家的市民参与型节目《市民版本》和充满乱打、萨克斯风等舞台的《商圈活性化节目》、为街头表演爱好者准备的《音乐街》和沟通型艺术跳蚤市场《青年艺术市场》等市民和艺术家们共同联合享受的节目。

另外，结束3天热情的5月5日儿童节晚上舞台，将由大韩民国代表伊卢舍恩(音)艺术家李恩杰(音)带来长达40分钟的“Illution Performance”。梦幻般的表演结束后，装饰庆典结尾的“幻想火花”将点缀安山文化广场。

希望参加庆典的外国居民请于5月3日至5日随时访问安山文化广场。包括27部正式参赛作品在内，136个演出和节目将给外国居民带来快乐。 www.ansanfest.com

〈한글 기사 지난호 5면〉 [파파야스토리](#)

เทศกาลศิลปะบนถนนตัวแทนของเกาหลีจะจัดขึ้นที่เมืองอันซานตั้งแต่วันที่ 3 ถึง 5 พฤษภาคม!

เทศกาลศิลปะบนถนนนานาชาติอันซาน, มีการแสดงและโปรแกรมต่างๆ ถึง 136 รายการ...สร้างบรรยากาศเทศกาลให้คึกคัก

เทศกาลศิลปะบนถนนนานาชาติอันซาน ซึ่งเป็นเทศกาลศิลปะบนถนนที่เป็นตัวแท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กำลังเตรียมพร้อมสำหรับการพบปะกับผู้ชมเป็นครั้งที่ 21

เมืองอันซาน (นายกเทศมนตรี อี มินกึน) ได้ประกาศอย่างเป็นทางการเกี่ยวกับการแสดงและโปรแกรมของ “เทศกาลศิลปะบนถนนนานาชาติ อันซาน ครั้งที่ 21” ที่จะจัดขึ้นเป็นเวลา 3 วัน ตั้งแต่วันที่ 3 ถึง 5 พฤษภาคม

เทศกาลศิลปะบนท้องถนนนานาชาติอันซานเป็นเทศกาลที่เป็นตัวแทนของเมืองอันซาน จัดขึ้นทุกเดือนพฤษภาคม ตั้งแต่ปี 2005 เพื่อใช้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ลักษณะเฉพาะของเมืองอันซานและเพิ่มความมีชีวิตชีวาให้กับภูมิภาค เทศกาลดังกล่าวซึ่งมีจุดศูนย์กลางอยู่ที่บริเวณจัตุรัส วัฒนธรรมอันซาน โดยใช้ถนนในตัวเมืองเป็นเวทีเพื่อมอบแรงบันดาลใจทางศิลปะและประสบการณ์พิเศษใน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ให้แก่ประชาชน

“เทศกาลศิลปะบนถนนนานาชาติอันซานครั้งที่ 21” มีเป้าหมายที่จะเป็นเทศกาลที่เชื่อมโยงศิลปะกับชีวิตประจำวัน ภายใต้สโลแกน “ศิลปะที่พบเห็นบนท้องถนน เชื่อมโยงโลกเข้าด้วยกัน” ▲เทศกาลที่ผู้คนทุกเพศทุกวัยทั้งเด็ก, เยาวชน, นักศึกษา, ครอบครัวผู้สูงอายุ 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มาร่วมตัวกัน ▲เทศกาลที่วางแผนและส่งเสริมร่วมกับชุมชนท้องถิ่น ▲เทศกาลที่หลายขอบเขตและนำทุกคนมาร่วมกัน คาดว่าจะสร้างความสมบูรณ์แบบในช่วงต้นเดือนพฤษภาคม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ปีนี้มีจุดเด่นคือการจัดเตรียมพื้นที่และโปรแกรมที่ออกแบบมาให้เหมาะกับแต่ละกลุ่มผู้คน เพื่อสร้างพื้นที่ที่ทุกคน สามารถมีส่วนร่วมและสัมผัส

ประสบการณ์ร่วมกันได้อย่างแท้จริง

นอกจากนี้ เทศกาลในปีนี่ยังมีแผนที่จะจัดแสดงการแสดง 2 รายการ จากโครงการสนับสนุนการผลิต “สถาบันวิจัยอันซาน” ที่จะเปิดเผยเรื่องราวของเมืองอันซาน รวมไปถึงการแสดงและโปรแกรมการมีส่วนร่วมอีก 136 รายการ จากกลุ่มการแสดงศิลปะบนถนนชั้นนำในประเทศ

ทั้งดนตรี การเต้น, และแม้แต่การแสดงมายากล!

ในวันที่ 3 พฤษภาคม ที่จัตุรัสวัฒนธรรมอันซานจะเริ่มต้นด้วยการแสดงเปิดงาน 3 รายการ โดยเริ่มจากการแสดงของทีมร้องประสานเสียง ที่ประกอบด้วยนักศึกษาสาขาดนตรีสมัยนิยมจากมหาวิทยาลัยศิลปะโซล ซึ่งเป็นสถาบันที่ผลิตศิลปินยอดเยี่ยมมากมาย พวกเขาจะขับร้องบทเพลง “ก้าวไปด้วยกัน” ด้วยเสียงที่เปี่ยมด้วยความหวัง ถ่ายทอดพลังแห่งความเป็นหนึ่งเดียวของ “อันซาน”

“เยฮวา_Flaming Fire” ซึ่งเป็นการแสดงเต้นกับไฟบนเวทีศิลปะอย่างเต็มรูปแบบครั้งแรกของเกาหลี จะนำเสนอผลงานการเต้นชื่อว่า “เศษเสี้ยวแห่งความหลงใหล” ประกอบกับประกายไฟอันตื่นตาให้แก่ผู้ชม เวทีสุดท้ายของการแสดงเปิดงานในวันนั้นจะเป็นของสองทีมชื่อดัง แห่งวงการสตรีทแดนซ์เกาหลี ได้แก่ “Gamblerz Crew” ทีมแดนซ์สตรีทระดับตำนานขอ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 “Rolling Hands” ทีมผู้หญิงสาย ล็อกกิ้งชื่อดัง โดยพวกเขาจะสร้างพลังแห่งความมั่นใจให้ผ่านเวทีผ่านการแสดงในชื่อ “Street on the Top” สร้างความคึกคักให้กับเทศกาล ศิลปะบนถนนนานาชาติอันซา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ในปีนี้จะมีการแสดงโดยใช้เครื่องมือต่างๆ ที่จะทำให้การแสดงมีความสนุกสนานและ

น่าสนใจมากขึ้น สำหรับผู้เยี่ยมชมทุกคน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มีแผนสำหรับโปรแกรมต่างๆ ที่ประชาชนและศิลปินสามารถมาร่วมตัวกันและสนุกสนานไปด้วยกัน เช่น “Citizen Version” ซึ่งเป็นโปรแกรมการมีส่วนร่วมของพลเมือง โดยพลเมืองสามารถกลายเป็นศิลปินและทำการแสดงต่างๆ ได้ “โครงการฟื้นฟูกิจการ เชิงพาณิชย์” ที่เต็มไปด้วยเวทีการแสดงอย่าง Nanta และแซกโซโฟน “Music Street” สำหรับผู้ชื่นชอบการบ๊องส์ (การแสดงริมถนน) และ “ตลาดศิลปะเยาวชน” ซึ่งเป็นตลาดนัดศิลปะที่เปิดโอกาสให้มีการสื่อสารระหว่างศิลปินกับผู้เข้าชม ทั้งหมดนี้เป็นกิจกรรมที่ศิลปินและ ประชาชนจะได้มาร่วมสนุกและสร้างความสัมพันธ์กัน

ในขณะเดียวกัน ในช่วงเย็นของวันที่ 5 พฤษภาคม ซึ่งเป็นวันเด็ก และเป็นเวทีปิดท้ายความร่อนแรงของเทศกาลตลอด 3 วัน จะมีการแสดง “อัลลูชั่นเพอร์ฟอร์แมนซ์” โดยอี อึนยองล นักมายากลชื่อดังของเกาหลีใต้ เป็นเวลา 40 นาที หลังจากการแสดงสุดมหัศจรรย์นี้ ก็จะมีการจุด “พลุแฟนตาซี” เพื่อปิดท้ายเทศกาลอย่างยิ่งใหญ่ ณ ลานวัฒนธรรมอันซาน

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ต้องการเข้าร่วมเทศกาล สามารถมาเยือนได้ที่ลานวัฒนธรรมอันซานได้ทุกเวลา ตั้งแต่วันที่ 3 ถึง 5 พฤษภาคม โดยจะมีการแสดงและโปรแกรมรวมทั้งหมด 136 รายการ รวมถึงรายการที่เข้าร่วมอย่างเป็นทางการจำนวน 27 รายการ ที่จะมาสร้าง ความสนุกสนานให้กั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กท่าน เว็บไซต์: www.ansanfest.com

〈한글 기사 지난호 5면〉 [파파야스토리](#)

학습의 경계 넘어 이주 청소년 포용!



안산시평생학습관, 한국어랭기지스쿨 이음 한국어교실

안산시평생학습관(신영철 관장)은 지난 4월 16일 안산시평생학습관에서 ‘2025년 안산 한국어랭기지스쿨(KLS) 이음 한국어교실 입학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위탁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날 한국어교실 입학식에는 교육지원청 관계자, 위탁학생, 재적학교 교장 및 부장, 안산시평생학습관 관계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음 한국어교실은 입국 초기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준비과정 없이 학교에 입학하여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 학생에게 한국어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안산시평생학습관은 지난 2024년부터 위탁기관으

로 지정받아 지역의 중고등 다문화 학생에게 한 학기에 60일간 한국어 집중교육과 기초 수학, 과학, 창의적 체험활동 등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영철 관장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한국어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이음 한국어교실이 학습의 경계를 넘어 이주 청소년을 포용하는 안산의 문화·교육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산 한국어랭기지스쿨(KLS) 이음 한국어교실 입학 문의는 안산시평생학습관이나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안산시, ‘안산형 놀이혁신 선도사업’...놀이문화 지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창의적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안산형 놀이혁신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동에게 자유롭게 상상하고 몰입하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아동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사업을 운영해, 올해 6년째를 맞았다.

이번 사업에는 ▲자연 속에서 모험과 탐색을 경험하는 ‘숲에서 놀자!’ ▲전통 놀이와 신체 활동을 통해 협동심을 키우는 ‘신나는 PLAY놀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도 있다.

참여 신청은 5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만 6세부터 12세까지 1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진다. 모집 기간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씩, 총 24회 야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식 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아동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안산시, 학교 밖 청소년 문화 예술 체험·공동체 활동 지원

안산시(시장 이민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지난 25일 지역문화예술단체 ‘그라운드 뭉’ (대표 유정재)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체험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사례 발굴 및 연계 ▲선주민과 이주민 학교 밖 청소년 공동체 활동 지원 ▲건강한 학교 밖 청소년 육성 및 발굴 등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지속 모색할 예정이다.

서은경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문화와 예술을 매개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복지지원 ▲자립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정신건강지원 ▲활동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안산스마트허브문화센터, IT강좌 수강생 모집



안산시(시장 이민근) 안산스마트허브복합문화센터는 2025년 상반기 단기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단기강좌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컴퓨터&디지털, 인문교양, 문화예술 분야의 19개 강좌로 구성됐다. 또한 근로자의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해 총 14개 강좌를 야간에 배정했다.

교육에서는 컴퓨터&디지털 활용력을 높일 수 있는 ▲유튜브 영상 제작 ▲플랫폼을 활용한 디자인 상품 만들기 ▲구글(오피스)활용 업무능력 키우기 ▲공간 정리 등의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엔 열리는 ▲가

야금 ▲첼로 ▲해금 강좌의 경우 안산문화재단과의 업무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안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교육사업인 ‘이음악기’ 사업으로 안산문화재단이 수강생들에게 수업 관련 악기를 무료로 제공한다.

5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기강좌는 오전 10시부터 21시까지 구성돼 있다. 다만, 강좌마다 교육 시간과 일정이 상이해 신청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강좌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안산스마트허브복합문화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4월 21일 12시 30분부터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과 안산스마트허브복합문화센터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4월 28일 12시까지는 안산시 노동자와 시민만 신청이 가능하며, 4월 28일 12시부터 타 거주자 및 중복 접수가 가능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기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마련했다”라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서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시흥시, 다문화외국인주민협의체 역량강화 연수 진행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4월 26일 ‘2025년 다문화 외국인주민협의체(이하, 시사우) 역량강화 공동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공동 연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시흥의 대표 명소를 탐방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공동 연수에는 다문화 외국인 주민협의체 위원과 국가별 자원봉사단체 회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갯골생태공원 ▲물왕호수 ▲맑은물 상상누리 등 시흥시를 대표하는 자연 및 환경 명소를 방문하며, 시흥의 생태 환경과 지역 특성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외국인주민들이 직접 자신

이 살고 있는 지역을 둘러보며 소속감을 높이고,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박용주 시흥시 외국인주민과장은 “외국인주민 지도자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라며, “이번 공동 연수가 외국인주민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문화·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 주도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시흥시 학습 사각지대 해소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 모집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35만 원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대상자와 등록 장애인 등 총 331명을 모집하며, 일반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40명,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등록 장애인 91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농협채움카드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전국 기관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하거나 필요한 교재를 구매할 수 있다. 수강이 가능한 기관과 강좌 정보는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gyeongg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일반 대상자는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gyeonggi)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대상자는 보조금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증 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흥시 평생학습과(소래산길 11, 으뜸관 3층)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1544-6500)로 문의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시흥시, 해외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권장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질병관리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호흡기 감염병을 검사하는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검사 서비스 이용을 권장했다. 이번 사업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 중 호흡기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희망자는 김포 제주 김해공항 검역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항목은 ▲조류 유행성 감기(AI) 인체감염증 ▲코로나19 ▲유행성 감기(A/B) 3종 등 호흡기 감염병이며, 검사 결과는 본인에게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된다. 양성 판정을 받으면 검역소를 통해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 조기 탐지를 통해 국내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련됐으며, 김포·제주공항에서는 올해 2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4월 15일부터는 김해공항까지 확대돼 진행 중이다.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는 국립검역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2025. 5.

농곡분관

프로그램일정

상시 프로그램

01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한국어교실

자녀학습지도(1단계), 지역문화활동(2단계) 토익듣기(3단계), 토익쓰기(4단계)

02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지원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각종 생활안내 지원 등

03 다가온(ON) 결혼이민자 수공예교실

- 재봉틀, 뜨개질 등 상시 수공예교실 운영

- 수공예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작품 기부

04 개인 및 가족상담

개인 및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

05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원

(한·수, 3세~초등6학년)

사전 언어평가 후,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 대상으로 주1~2회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센터 내부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통합가족지원

가족생애주기별에 따라 발달과업에 맞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다가온(ON)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및 상시 프로그램 (자녀돌봄지원,수공예교실)

자조모임 및 기타

결혼이민자 자조활동 및 기타 프로그램

<글라스아트-시계만들기>

5월 14일(수) 15:00-17:00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부모와 자녀 대상

<피규어제작만들기>

5월 16일(금) 10:30-12:00

공천유치원

부모와 자녀 대상

<신체놀이>

5월 22일(목) 18:00-19:30

아이누리돌봄센터 온계센터월터온점

부모와 자녀 대상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결혼이민자 자조활동]

1 「다자모」

2 「무지개」

3 「J-테라피(일본)」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해피몽골」

★ 모임별 월 1회 활동

가족센터

시흥시가족센터

자녀 문화나들이 '따오기 픽크닉'

따오기아동문화관, '문화나들이 꾸러미' 대여



시흥시 따오기아동문화관이 4월부터 10월 말까지 관람객을 대상으로 '따오기 픽(pick)크닉'을 운영한다.

픽(pick)크닉은 '고르다(Pick)'와 소풍(Picnic)을 합친 조어로, 이는 가족들이 야외에서 문화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돼 문화나들이 꾸러미를 대여한다. 꾸러미는 그늘막, 소풍 바구니, 돛자리, 책, 악기(칼리바) 등 소풍 용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에서 선착순(5팀 한정)으로,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픽크닉 운영

기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따오기아동문화관을 방문한 관람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도 따오기아동문화관에 방문해 자녀와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고 소풍도 하면 좋겠다. 따오기아동문화관장은 "야외경관이 아름다운 따오기아동문화관에서 탁 트인 하늘과 물소리,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며 가족과 함께 문화로 행복한 여가를 즐기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시흥시 물왕호수 인근에 위치한 따오기아동문화관은 아동의 문화 감수성 증대와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해 건립됐다. 아동문학 및 문화 관련 전시 및 교육 등 문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031-310-6994 이지은 기자

다문화 자녀, 교육 기회 확대!

시흥시,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 40만~60만 원 상당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는 아동·청소년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연 1회 초등학교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다. 지원금은 서점, 학원, 독서실 이용, 교재 구매 등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

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활동비 지원 대상은 교육 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흥시 다문화가족의 7~18세(200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출생) 자녀다.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1차 5월 2일~5월 30일까지 ▲2차 7월 1일~7월 31일까지며, 시흥시 가족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추가 문의 사항은 시흥시 가족센터(070-4107-8079, 070-4107-8078)로 전화하면 된다.

박용주 시흥시 외국인주민과장은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더욱 나은 교육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외국인주민 통합교육

즐거로운 한국살이

노무

교육

기초 노동법 및 산재보험 퇴직금계산,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 등 회사에서 알아야 할 기본 상식에 대해 배워보아요

01
모집안내

- 대상 : 외국인 주민 20명
- 모집 : 4월27일(일)~5월4일(일)
- 교육 : 5월11일(일) 14:00~17:00
- 장소 : 센터 301호

02
신청안내

- 신청 : 온라인(구글 신청서 작성)
- 문의 : 031-434-0411

<https://m.site.naver.com/1GG90>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여성가족부 언제나 든든한 가족

한국어

www.familynet.or.kr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이렇게 신청하세요!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2007. 1. 1. ~ 2018. 12. 31. 출생자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장소

'25. 5. 2. ~ 5. 30., 7. 1. ~ 7. 31.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신청 시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교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25년 6월부터 11월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 소멸

신청문의

전국 가족센터 ☎1577-9337
※ 가족센터 찾기 : 가족센터(www.familynet.or.kr) → 지역센터안내

In Gyeonggi Province, foreign residents also receive compensation for ‘climate-related diseases and injuries’! 외국인도 보장되는 경기 기후보험

Gyeonggi Province has become the first in the country to implement climate insurance.

On the 11th, Gyeonggi Province announced that it signed a contract with the Hanwha General Insurance Consortium (Nonghyup General Insurance, Ace General Insurance) and will compensate all Gyeonggi Province residents for climate-related diseases and injuries until April 10th of next year.

The ‘Gyeonggi Climate Insurance’, which is being implemented to protect the health and safety of residents from the climate crisis, provides ▲diagnosis fees for heat and cold diseases ▲diagnosis fees for infectious diseases ▲a fixed amount of accident compensation for injuries for more than 4 weeks related to special weather reports.

All Gyeonggi-do residents, including registered foreigners, are automatically enrolled in climate insurance without any separate procedures. This means

that they can now receive insurance compensation for climate-related health damage. For example, if a foreign seasonal worker collapses while working in Gyeonggi-do in the summer, they can receive 100,000 won in heat-related illness diagnosis fees (limited to once a year). If they suffer damage such as frostbite in the winter, they can also receive 100,000 won in cold-related illness diagnosis fees.

In particular, approximately 160,000 domestic climate-vulnerable people (those eligible for the city/county public health center visiting health management project) can receive additional coverage in addition to the basic coverage items: ▲hospitalization costs for heat-related and cold-related illnesses (KRW 100,000 per day), ▲transportation costs to medical institutions in case of special weather reports, ▲ambulance after-transport costs in case of climate disasters, and ▲support for mental damage caused by

climate disasters. If you are a resident of Gyeonggi Province, you will be covered for accident damages as specifi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regardless of the domestic accident location (Seoul, Jeju, etc.), and the victimized resident can receive support retroactively for 3 years from the date of the accident.

To claim insurance benefits, the victimized resident must prepare the claim documents and apply directly to the insurance company contracted by Gyeonggi Province (Hanwha General Insurance, call center 02-2175-5030). The insurance company will review the documents and pay the insurance benefits within 3 days of receiving the application.

Gyeonggi Province expects that its residents will be able to receive support for various climate-related damages, such as tick-borne infectious diseases such as tsutsugamushi disease in spring and fall, heat-related illnesses caused by

heat waves in summer and cold-related illnesses caused by cold waves in winter, and other accidents caused by heavy rain, heavy snow, and forest fires.

An official from the Gyeonggi Province Climate Environment Energy Bureau said, “It would be best for the residents to not suffer from diseases or accidents related to unpredictable climate change, but if there is any health damage covered by ‘Gyeonggi Climate Insurance,’ please be sure to apply and receive insurance benefit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Gyeonggi climate insurance coverage and application method can be found on the Gyeonggi Province website (www.gg.go.kr/gg_insure), or you can receive guidance through the main call center (02-2175-5030) or the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Division (031-8008-4242).

〈한글 기사 20면〉

파파야스토리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тож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компенсацию за «заболевания и травмы, связанные с климатом»!

Кёнгидо первым в стране приступил к внедрению климатической страховки

11 апреля Кёнгидо заключил контракт с консорциумом Hanwha General Insurance (включая NongHyup Property & Casualty Insurance и ACE Insurance) и объявил, что до 10 апреля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будет выплачивать компенсации всем жителям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за заболевания и травмы, связанные с климатом.

«Климатическая страховка Кёнги», которая вводится для защиты здоровь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жителей в условиях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покрывает: ▲расходы на диагностику тепловых и холодовых заболеваний ▲расходы на диагностику инфекционных болезней ▲фиксированные выплаты при травмах, вызванных погодными предупреждениями,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они продолжаются более 4 недель.

Все жители Кёнгидо, включа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автоматически застрахованы бе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хожде

ния отдельных процедур. Таким образом, он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траховые выплаты за ущерб здоровью, связанный с климатом.

Например, если иностранный сезонный рабочий во время работы летом в Кёнгидо потеряет сознание, он может получить 100 000 вон за диагностику теплов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ограничено один раз в год). Также в случае обморожения зимой он может получить 100 000 вон за диагностику холодов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Особенно уязвимые к климату группы населения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около 160 000 человек, участвующих в программе посещения медработниками местных здравпунктов)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олучают ▲компенсацию за госпитализацию при тепловых и холодовых заболеваниях (100 000 вон в день) ▲транспортные расходы до медучреждения в случае погодного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расходы на транспортировку посл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машины скорой помощи при климатическом бедствии ▲поддержку при п

сихологическом ущербе, вызванном климатическими катастрофами.

Если вы житель Кёнгидо, страховые выплаты покрываются согласно условиям полиса независимо от места происшествия в пределах страны (например, Сеул, Чеджу и др.), и вы можете подать на компенсацию в течение 3 лет с момента происшествия.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страховую выплату, пострадавшему жителю нужно собрать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и напрямую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в страховую компанию, с которой Кёнгидо заключил контракт (Hanwha General Insurance, колл-центр 02-2175-5030). После подачи документов страховая компания проверяет их и выплачивает страховую сумму в течение 3 дней.

В Кёнгидо ожидают, что жител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ддержку в случае различны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ущербов, включая клещевые инфекции (цугамуси и др.) весной и осенью, тепловые заболевания летом из-за

жары, холодовые заболевания зимой, а также в случае наводнений, сильных снегопадов, лесных пожаров и других происшеств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Департамента климат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 энергетики Кёнгидо заявил: «Было бы лучше, если бы жители Кёнгидо вовсе не сталкивались с заболеваниями и происшествиями, вызванными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ми изменениями климата, но если случится вред здоровью, покрываемый “Климатической страховкой Кёнги”, мы настоятельно рекомендуем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страховых выплат».

Подробности о покрытии «Климатической страховки Кёнги» и способах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й можно найти на сайте Кёнгидо (www.gg.go.kr/gg_insure), а также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в колл-центре (02-2175-5030) или в отделе эколог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031-8008-4242).

〈한글 기사 20면〉

파파야스토리



외국인과 시민에 건강검진 상담 제공

정왕보건지소, 찾아가는 건강버스 ‘흥카’ 정왕시장 방문

시흥시 정왕보건지소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건강버스 ‘흥카’가 지난 4월 22일 정왕시장을 찾아 상인을 비롯한 일반시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정왕보건지소 전문 인력(의사, 간호사, 운동지도사 등)이 참여해 ▲혈압 혈당 측정 ▲체성분 검사 ▲모세혈관 검사 등 기초 및 특화 건강검진을 추진했다. 검진 후에는 현장에서 즉시 건강상담이 이뤄졌으며,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추후 사후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올해 ‘찾아가는 건강버스 흥카’는 기존 산업장 중심에서 벗어나 전통시장 상인, 아파트 주민, 외국인 복지센터 방문자 등 일반 시민까지 대상을 확대했으

며, 희망 기관의 신청을 받아 일정 협의 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정왕시장 방문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의 참여도 활발했으며, 상인과 시민들은 “평소 바쁜 일정으로 건강을 챙기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시장으로 직접 찾아와줘서 감사하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보현 정왕보건지소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건강서비스 ‘흥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건강버스 ‘흥카’ 운영 관련 문의는 시흥시 정왕보건지소 산업 건강관리팀(031-310-6802)으로 하면 된다. 송하성 기자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 추진



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학교밖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진로

방향 설계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특성과 관심사를 고려해 구성했다. ▲자기계발과정 ▲자격증 취득반 ▲여성가족부의 자립취업지원서비스 연계 등이 있다.

자기계발 과정은 4월에는 제빵(베이킹) 프로그램, 7월에는 그림말(이모티콘) 제작, 10월에는 사전 욕구조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원할 예정이다. 과정은 주 2회, 30시간 운영한다.

자격증 취득반 운영은 연 4차례 지원된다. 1차와 3차는 협약기관인 에듀컴퓨터교육학원에서 한글, 엑셀, 일러스트 과정 등을 진행하며 2차와 4차는 학교 밖 센터에서 바리스타 2급 자격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자기계발 프로그램 30시간 이수 및 자격증 취득과정 등에 성실하게 참여한 청소년에게는 자립계획서 작성 및 실천 사항을 근거로 자립훈련수당 및 자격취득수당을 시흥시 지역화폐 시루로 지급한다.

여성가족부의 자립취업지원서비스는 자립과 취업을 하고자 하는 15세 이상·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 사전 면담과정을 거쳐 희망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맞춤형 직업훈련이나 지역사회 내 직업인 및 기업 등과 연계해 실습 사원 및 직장 체험 기회를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소년재단 누리집 혹은 카카오톡 채널 ‘시흥시꿈드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404-1318)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이주민도 자전거 타고 월곶서 거북섬까지” 시흥시, 해양 자전거 여행길 공모 선정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심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전거 여행길 조성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여행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해로도로 3만 길(로드)

활성화’를 주제로, 월곶포구에서 배곧신도시와 오이도를 지나,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주목받는 거북섬에 이르는 총 15킬로미터(km)의 해안 자전거 여행길 조성을 통해 바다와 도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시흥만의 독특한 매력을 담아, 일상을 벗어난 새로운 여행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거북섬은 시흥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복합 해양레저 관광단지로, 서해안의 새로운 상징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자전거길 조성 사업은 거북섬과 연계된 체험·관광 프로그램으로 확장되며, 방문객의 발길을 해안도로 끝까지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안 길에는 자전거 거치대와 감성적인 안내 사인을 비롯해 쉼터, 사진 촬영 구역 등 여행자와 시민이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자전거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여행 콘텐츠 개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상권 연계 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야기하기(스토리 텔링) 홍보 마케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흥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자전거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도시 풍경을 온전히 체험하는 가장 감성적인 여행 방식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노정곤 시흥시 관광과장은 “월곶의 정취, 배곧의 도시 감성, 오이도의 낙조, 거북섬의 푸른 전망이 하나로 이어지는 해안 길은 시흥만이 가질 수 있는 자산”이라며, “시민과 외국인주민, 관광객 모두가 걷고, 타고, 머무르고 싶은 시흥만의 자전거 여행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국세청 홍보대사 신혜선 강하늘

신고기간

2025. 5. 1.(목) ~ 6. 2.(월)

납부기한

2025. 6. 2.(월)까지

신고방법

전자신고

PC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모바일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방문신고

대상

신고도움이 필요한 모두채움 대상자
※ 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장소

시흥시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상담 문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
콜센터 1661-6669

지방자치단체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시흥시청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031-310-3972~3975

개인지방소득세

Q & A

Q.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납부 해야하나요?

A. 네. 국세인 소득세의 부가세(10%) 형태로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를 2020년부터 납세자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Q.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는데 세액은 확정세액인가요?

A. 아니오. 모두채움 안내문의 안내세액은 확정세액이 아닙니다.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홈택스(또는 손택스)-위택스 연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Q. 종합소득세(국세)는 환급,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을 수 있나요?

A. 네.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에 의한 사전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보다 중간예납한 세액이 더 크다면 종합소득세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지방소득세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 신고 시 중간예납 세액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6월 2일까지 잊지 말고
신고·납부 해주세요!

2025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국세청 홍보대사 신혜선 강하늘



step 1

신고하기

1. 전자신고

PC 신고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②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신고내역 조회' 이동
③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박**	*****	보기	보기		N	신고이동

모바일 신고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①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② 신고서 작성 후 제출
③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하여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2. 방문신고 (납세자 본인 신분증 지참)

장소

시·군·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 5월 중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서 지자체 신고창구 위치 조회 가능

대상

신고도움이 필요한 모두채움 대상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 종합소득세는 ARS 신고(☎1544-9944) 별도 필요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신고안내문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안내문	모두채움(납부)	
홍길동 님, 안녕하십니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
납부할 세액	500,000원	5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1661-6669
(신고·납부 관련 문의)

step 2

납부하기

1. 전자납부

위택스 PC (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납부대상 확인 '지방세' 클릭 ➔ 납부대상 검색/조회 ➔ 납부
- 빠른 납부 칸에 '전자납부번호' 입력 ➔ 검색 후 고지서 보기 클릭 ➔ 로그인 ➔ 납부
※ 타인납부 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필수

2. 가상계좌 납부

모두채움 대상자

① 세액변동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종합소득세는 ARS 전화신고 후 가상계좌 확인)

②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홈택스(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후 조회되는 가상계좌로 납부

일반신고자

- 신고 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
(개인지방소득세 문의 : 시·군·구 세무부서)

3. 자동화 기기 납부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CD/ATM을 이용 시
모두채움 안내문 없이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가능

- CD/ATM 기기에 카드 또는 통장 투입 ➔ 지방세(공과금)선택 ➔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 선택 ➔ 납부
※ 타인납부 시 전자납부번호 필요

분할 납부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외국인 유학생, 국내 중소기업 인재로 양성...참여자 모집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선정...유학생 취업역량 강화

외국인 유학생, 기업 전문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의 맞춤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 프로젝트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선발평가를 거쳐 총 10개 대학교가 최종 선정됐어요.

선정된 대학교는 ▲경기과학기술대 ▲경성대 ▲국립창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동명대 ▲서정대 ▲선문대 ▲신안산대 ▲우송대 ▲충북보건과학대 등 10곳이에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각 대학교에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역량을 키우고 국내 중소기업으로의 원활한 채용 연계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이번에 선정된 10개 대학교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졸업예정 유학생과 구직 비자 보유 졸업생을 모집해요. 이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이해, 한국어 교육 등의 1단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인턴십, 현장실습 또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의 2단계 취업실전 대비 프로그램까지 총 200시간 이상을 운영해요.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에서 교육을 수료한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중소기업에 어렵지 않게 취업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돌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에요.

외국인 유학생, 수출 전문인력 양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K-수출전사 아카데미’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해요.

아카데미는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운영하는 학교기업인 ‘지엘피글로벌그룹’이 운영해요. 1기 과정은 5~8월, 2기 과정은 8~11월 진행돼요.

전문학사 이상 졸업(예정)자 중 유학(D-2) 또는 구직(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 300명을 선발해요. 교육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정부가 지원해요.

아카데미는 200시간의 커리큘럼으로 무역실무 이론과 수출·마케팅 실습, 취업코칭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해요. 이 과정을 마치면 해외영업 및 수출입 직무에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들이 E-7비자를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수료생은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인 ‘K-Work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취업을 연계해요.

1기 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유학생은 5월 2일까지 국문 이력서를 작성해 이메일(worldcareer@naver.com)로 제출하면 돼요. 관련 문의는 지엘피글로벌그룹 서울센터(02-6245-3579) 또는 부산센터(051-509-5996)로 하면 돼요.

〈러시아어 16면, 일본어 33면, 중국어 18면〉 파파야스토리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 в кадры для отечественных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й... Идёт набор участников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 подготовк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адров для компаний

Корпорация по поддержке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реализует проект «Университеты-лидеры п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глобальных талантов» с целью подготовки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в качестве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для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й.

Этот проект направлен на укрепление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нных навыков и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через практико-ориентированное обучение и участие в реальных проектах, чтобы поддерживать решение кадрового дефицита в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В результате отбора окончательный выбор пал на 10 университетов.

Выбранные университеты: ▲ Университет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Кёнги ▲ Университет Кёнсон ▲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Чханвона ▲ Университет науки и технологий Тэджона ▲ Университет Донмён ▲ Университет Соджон ▲ Университет Сонмун ▲ Университет Шинансана ▲ Университет Усона ▲ Чхунбук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науки — всего 10 учреждений.

Корпорация по поддержке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бизнеса планирует предоставить каждому университету до 150 миллионов вон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различных программ,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повышение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нных навыков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и содействие их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в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Выбранные университеты набирают студентов-иностранцев, планирующих выпуск, и выпускников с визой на поиск работы, желающих трудоустроиться в малые и средние предприятия. Для них будет проведено более 200 часов программ в два этапа: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 укрепление навыков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введение в работу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й,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др.),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 подготовка к реальной работе через стажировки, практику и проекты в рамк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завершившие обучение по программе «Университеты-лидеры п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глобальных талантов», смогут без особых трудностей найти работу в корейских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Обучен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комбинированной форме (онлайн и офлайн), а все расходы покрывает государство.

Академия предлагает 200-часовую учебную программу, включающую теорию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по экспорту и маркетингу, коучинг п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и другое практическое обучение.

Завершившие курс студенты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в получении визы E-7 для работы в области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экспортно-импортных операций.

Выпускники академии смогут найти и работу через специальную платформу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 «K-Work платформу».

Иностранные студенты, желающие участвовать в 1-м курсе, должны до 2 мая отправить резюм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о адресу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worldcareer@naver.com).

По вопросам можно обращаться в Сеульский центр GLP Global Group (02-6245-3579) или Пусанский центр (051-509-5996). 〈한글 기사 상단〉

Обучен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комбинированной форме (онлайн и офлайн), а все расходы покрывает государство.

Обучени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комбинированной форме (онлайн и офлайн), а все расходы покрывает государство.

이주민 자녀도 곤충과 추억 만들기

벅스리움,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 ‘행복애(愛) 곤충’ 진행

시흥시 곤충체험 전시관인 ‘벅스리움’이 어린이날을 맞아 ‘행복애(愛) 곤충’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상설전시관 내 특별이벤트와 야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상설전시관 내 특별이벤트는 벅스리움에서 인공 증식된 곤충을 분양받는 ‘흥곤이의 선물’, 행복하고 즐거운 곤충체험 현장 사진을 올리는 ‘행복애(愛) 곤충 누리소통망(SNS) 이벤트’, ‘곤충수영시합’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야외 프로그램에는 나비, 벌, 무당벌레 등을 얼굴에 그리는 ‘얼굴 그림(페이스 페인팅)’, ‘풍선 예술(아트)’, ‘손글씨(캘리그래피) 엽서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흥곤이의 선물’은 벅스리움에서 인공 증식돼 개체 수가 늘어난 생물들을 분양하는 이벤트로 벅스리움을 방문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

양되는 생물에는 왕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꽃무지 등 다양한 곤충 친구들이 준비돼 있다. 곤충 분양은 이벤트에 참여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벅스리움 ‘행복애(愛) 곤충’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현장에 방문해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행사 안내는 벅스리움 누리집(<https://bugsrium.siheung.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화 시흥시 농업기술과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벅스리움을 찾은 가족들이 곤충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날 기념행사 이후에도 벅스리움을 즐겁게 이용할 수 있다. 4월 2일부터 자율 관람제로 운영 중인 벅스리움은 평일 100여 명, 주말 250여 명이 방문해 4월에만 벌써 3,5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문의 031-310-6221, 8791 송하성 기자



시흥시, 몽골 흡수굴도 우호 협력강화 교류확대 등 논의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4월 30일 시청 다솔방에서 몽골 흡수굴과 우호도시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양 도시 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몽골 흡수굴 바트에르텐 바트를지 국회의원과 체렌 바담 간수크 부지사 등 관계자 8명이 시흥시를 방문해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몽골 흡수굴 아이막 대표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몽골 북부에 있는 흡수굴 아이막은 13만 명 인구가 거주하는 소도시로, 몽골 최대 담수 호인 흡수굴 호수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아이막에 있는 무릉공항이 오는 여름 국제공항으로 승격되면서 첫 국제선으로 ‘한국 충주-몽골 무릉’ 간 직항 노선이 신설된다. 이번 국제선 취항은 몽골 북부 지역의 관광 및 경제 활성화는 물론, 한국과 몽골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모색 중인 몽골 흡수굴 아이막 대표단은 인적 교류 및 관광자원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자 시화호를 품은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시흥시 방문을 추진했다.

간담회에서는 시흥시 홍보영상을 시청한 데 이어 양측은 교육·관광·산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문화·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전형
자격요건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3호, 국적법 4조에 의해 대한민국으로 결혼이민자나 귀화허가자의 자녀

다문화전형의메리트

특별전형 지원 가능: 시립대

모집단위	학생부 종합전형 평균등급 (적자)			사회통합전형 평균등급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경제학부	2.33 (반 3등)	-	4.65 (반 15등)	2.93 (반 8등)	7.46	6.39 (반 25등)
경영학부	2.18	4.49	4.23	2.76	-	5.16
컴퓨터공학부	2.2	4.57	4.79	2.62	3.88	6.68

다문화전형의메리트

2026 지원가능한 대학 (다문화 단독)

대학	전형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기준
광주교대	다문화-교과	3	교과80 + 서류20	X
	전남교육감추천 다문화-종합	10	2.5배수(서류100) + 면접30	X
전주교대	다문화가정자녀-종합	5	2배수(서류100) + 면접30	X
전주교대	다문화 탈북학생-종합	3	2.5배수(서류100) + 면접30	X
청주교대	다문화가족자녀-종합	5	3배수(서류100) + 면접40	X
춘천교대	다문화가정자녀-종합	2	서류100	X

대학입시 전문 컴세바IT탐구학원

다문화전형의메리트

2026 지원가능한 대학 (다문화 단독X)

대학	전형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능기준
카이스트	고른기회 - 종합	60	서류100 + 면접60	X
경희대	기회균형II - 종합	90	서류70 + 교과30	X
서강대	서강가치 - 종합	36	서류100	X
세종대	사회기여 및 베레자 - 종합	30	서류100	X
중앙대	CAU어울림 - 종합	20	서류100	X

031-313-5073

다문화전형
=특별전형

특별 전형의 장점: 일반 전형에 비해 합격선과 경쟁률이 낮은 편

단, 유의할 점: 모집인원이 매우 적기에 일반적인 입시 결과로 지원하면 안됨

따라서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



‘중장년 수다살롱’ 건강한 소통해요~

파주시가족센터, 1인가구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사숙)는 지난 4월 16일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인 ‘중장년 수다살롱’ 동아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중장년 수다살롱’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40~64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동아리 결성을 통한 사회적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1인가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참여자들과 함께 활동계

획서를 작성하고, 예산 지출 방법 및 활동 규칙 등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동아리 활동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파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중장년 수다살롱 외에도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파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031-949-916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딸기 따며 사랑을 키워요”
파주시가족센터, 부부교육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사숙)는 지난 4월 5일 파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부부 총 10쌍 20명을 대상으로 배우자 부부교육 1회기 ‘딸기 따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은 다문화 부부의 관계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부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 운영된다. 이날 참가자들은 파주시 인근 체험 농장을 방문해 직접 딸기를 수확하고, 함께 수확한 딸기로 간단한 디저트를 만들며 서로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남편과 함께 자연을 느끼며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 부부가 함께 웃고 소통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딸기 따기 체험’은 총 5회기로 구성된 배우자·부부교육 프로그램의 첫 시작으로, 앞으로는 감정 코칭, 부부 소통법 등 실질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다. 문의 031-949-9161 김영의 기자

“将外国留学生培养成国内中小企业人才”

外国留学生将被培养成企业专门人才
中小风险企业振兴公团为了将外国留学生培养成中小风险企业的定制型专业人才，正在执行“全球人才就业先导大学”项目。
全球人才就业先导大学是以外国留学生为对象，加强国内就业力量，通过实务中心教育和现场项目结合，支援解决中小风险企业人力难的项目。经过选拔评价，最终选定了10所大学。
被选定的大学有▲京畿科学技术大学▲庆星大学▲国立昌原大学▲大田科学技术大学▲东明大学▲西正大学▲鲜文大学▲新安山大学▲又松大学▲忠北保健科学大学等10所。
中小风险企业振兴公团计划向各大学最多支援1亿5000万韩元，培养外国留学生的就业能力，并运营帮助国内中小风险企业顺利招聘提供多种项目。此次选定的10所大学将招募希望在中小风险企业就业的应届留学生和持有求职签证的毕业生。以他们为对象，运营中小风险企业理解、韩国语教育等第一阶段就业力量强化项目和实习、现场实习及产学合作项目等第二阶段就业实战应对项目，共200小时以上。
在“全球人才就业先导大学”完成教育的外国留

学生可以轻松地在国内中小风险企业就业。中小风险企业振兴公团计划持续扩大项目，为突破中小风险企业的人力短缺提供支援。
将外国留学生培养成出口专业人才
中小风险企业振兴公团正在招收第一期“K-出口战士学院”学员，旨在将居住在韩国的外国留学生培养为出口专业人才。学院由釜山外国语大学运营的学校企业“GLP全球集团”运营。第一期课程在5~8月进行，第二期课程在8~11月进行。
从专科学历以上毕业（准毕业）者中选拔300名持有留学（D-2）或求职（D-10）签证的外国留学生。培训采取线上线下并行方式，培训费用全部由政府资助。200小时的课程包括贸易实务理论和出口・营销实操、就业指导等实务中心教育。完成该课程后，将有助于希望在海外营业及进出口岗位就业的留学生取得E-7签证。
结业生可通过留学生专用就业配对平台“K-Work平台”，与中小企业对接就业。有意参加第1期课程的留学生可于5月2日前提交韩文简历至邮箱：worldcareer@naver.com。如有相关咨询，可联系GLP Global Group的首尔中心（02-6245-3579）或釜山中心（051-509-5996）。〈한글 기사 16면〉

파주 경기육아나눔터 ‘온가족
소풍데이’ 4월 상시프로그램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사숙)는 지난 4월 19일 경기육아나눔터 이용자와 신규가입자 20가족(73명)을 대상으로 ‘온가족 소풍데이’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체험을 통해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체험은 ▲DMZ 친환경 로컬김밥 만들기 ▲파주 쌀 떡볶이 맛보기 등의 구성으로 체험이 진행됐다. 특히 업무협약 업체인 디엠지라운지(DMZ Lounge)로부터 체험비 일부를 지원받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체험이 진행됐다. 체험에 참여한 가족들은 “가족끼리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이라 더 뜻깊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육아나눔터는 파주시 야당동(한빛로 67)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유아·아동 과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 공간 운영, 품앗이 활동 지원, 상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031-949-9164 김영의 기자

체험과 교육으로 부부관계 향상

파주시가족센터, ‘힐링 교육&도에 체험’ 진행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사숙)는 지난 4월 12일 파주시에 거주하는 40~60대 부부 10쌍 20명을 대상으로 백담원 체험 장소에서 ‘힐링 교육&도에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부부의 관계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부부가 함께 엔틱 접시와 머그컵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소통을 더욱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날 체험에 참여한 한 부부는 “일상

의 바쁜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춰 부부가 서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파주시가족센터의 부부 특성화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진행한 신규사업이다. 부부.부모교육, 부부.가족 문화프로그램, 부부 지역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은 파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949-9164

김영의 기자

베이킹으로 건강한 식생활 배워요

파주시가족센터, 1인가구 대상 프로그램 진행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사숙)는 지난 4월 12일 1인가구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사회적 관계망 확대를 위한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 일환으로 베이킹 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체험은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구성된 르벡쿠키와 치즈 케이크 만들기 활동으로, 참가자들은 팀을 이루어 반죽부터 굽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웃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완성된 베이킹 결과물은 함께 시식하는 시간을 통해 성취감과 즐거움을 더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인데, 다 함께하니 너무 즐겁고 또 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파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베이킹 체험은 단순한 요리 활동 그 이상으로, 참가자 간 자연스러운 대화와 정서적 교류를 이끌어냈다”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가족센터는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외에도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중장년 수다살롱’, 일상 지원형 프로그램,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 중이다. 프로그램 참여 및 신청 관련 정보는 파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31-949-9164)로도 문의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2025년 다문화이해교육 및 인권감수성교육

"내가 사는 나라, 한국의 선거를 배워요!"

선거교육

대 상

파주시 관내 외국인주민 10명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교육일시

2025. 5. 29.(목) 13:00~14:00

모집기간

2025. 4. 21.(월) 선착순 모집 마감 시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
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 신청
>다문화이해교육 및 인권감수성교육
※ 담당자가 확인 후 추후 확인문자 발송

교육내용

다!문화 다!함께 만드는 선거
- 유권자?
- 선거란? 대표란?
- 투표하는 방법

교육장소

파주시가족센터(파주시 중앙로 229)

-본 프로그램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하여 진행됩니다-



※ 문의사항: 031-949-9164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협약

파주시가족센터, 파주시자원봉사센터와 MOU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사숙)는 지난 4월 18일 파주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은숙)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사회복지 및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파주시가족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정보공유와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공동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함께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특히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파주시가족센터 이사숙 센터장, 파주시자원봉사센터 김은숙 사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파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가족봉사단 등 다양한 서비스와 자원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다.

김영의 기자

경기도에선 이주민도 ‘기후 관련 질병·상해’ 보상 받아요!

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 기후보험’...등록 외국인 포함 모든 도민 가입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 시행에 들어갔어요.

경기도는 지난 11일 한화손해보험 컨소시엄(농협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 10일까지 모든 경기도민의 기후 관련 질병과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한다고 밝혔어요.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경기 기후보험’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보장해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기후보험에 자동 가입됐어요. 이에 기후 관련 건강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경기도에서 여름에 일을 하다가 쓰러진 경우 온열질환 진단비(연1회 제한)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겨울에 동상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내국인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기본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입원비(1일 10만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급급차 이후송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민이라면 국내 사고 발생지역(서울이나 제주 등)에 관계없이 약관에 보장하는 사고피해를 보장하며, 피해 도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험금 청구는 피해 도민이 청구서류를 구비해 경기도가 계약한 보험사(한화손해보험, 콜센터 02-2175-5030)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건은 보험사에서 서류 검토해 접수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요.

경기도는 봄·가을철 쪼쪼가무시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 여름철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과 겨울철 한파에 의한 한랭질환, 기타 폭우·폭설·산불 등에 의한 사고와 같이 도민들이 다양한 기후 관련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도민 여러분께서 관련 질병과 사고를 겪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경기 기후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의 건강피해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보험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경기 기후보험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insur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콜센터(02-2175-5030) 또는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중국어 하단, 러시아어 13면, 태국어 29면, 영어 13면, 일본어 3면〉

과파야스토리

밀착 청년공간

‘D-MZ 클래스’

파주시는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청년 창업가 사업장과의 상생을 도모한다고 28일 밝혔

다. 파주시는 지난 2월 경기도의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운영’ 공모에 선정돼 1000만원(도비 100%)의 사업비를 확보, 청년들의 생활권 지역의 민간 영역(청년 창업가 사업장)을 활용해 지역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활동 중심형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 ‘파주 청년 디(D)-엠지(MZ) 클래스’를 마련했다.

청년들의 접근성과 선호도를 고려해 선정된 올해 청년 사업장은 총 12 곳이다. 청년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5개 지역(문산읍, 운정1~3동, 운정5동)을 포함해 8개 지역에 분포해 있다.

선정된 사업장은 △제과/제빵(퍼지버니, 밀물소리, 미실스위츠) △건강/운동(요가라운드, 조셉무브먼트, 요가고우, 제이펜싱아카데미) △공예(갤러리모리, 헤이븐) △미술(예꿈아트스튜디오 미술교습소) △기타(운정바리스타학원, 숨해야당역 그레이스점) 등이다.

각 공간에서는 청년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취향 맞춤형 일일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12개 청년사업장에 사업비 및 공간사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는 물론 사업장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은 ‘양질의 강의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즐거웠던 시간이었다’는 참여 소감을 남기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사업 ‘파주 청년 D-MZ클래스’는 파주시 생활권 청년(19~39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확정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파주시 청년포털 또는 파주시 청년공간 네이버스마트플레이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031-940-5101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청년 사업장에서 여가를 즐기며 활력을 얻고, 동시에 청년 창업가 사업장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행복한 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京畿道,外国居民也能拿到’气候相关疾病·伤害’补偿!

京畿道在全国率先实行“京畿气候保险”...包括外国人在内的所有道民自动加入

京畿道在全国率先实行了气候保险。京畿道11日与韩华损害保险财团(农协损害保险、ACE损害保险)签订了合同,并表示到明年4月10日为止,将对所有京畿道居民的气候相关疾病和伤害进行赔偿。

为了保护气候危机下道民的健康和安全而实行的“京畿气候保险”包括 ▲温热疾病、寒冷疾病诊断费 ▲感染病诊断费 ▲气象特报相关4周以上伤害时,定额保障事故慰问金。

包括登记外国人在内的所有京畿道居民在没有其他程序的情况下自动加入了气候保险。

因此对于气候相关的健康损失,可以得到保险金补偿。

例如,外国季节劳动者在京畿道夏天工作时晕倒时,可以得到温热疾病诊断费(每年一次限制)10万韩元。冬天受到冻伤等伤害时,也可以得到

10万韩元的寒冷疾病诊断费。

特别是16万多名国内气候脆弱阶层(市郡保健所访问健康管理项目对象)在基本保障项目的基础上,还可以得到 ▲温热疾病和寒冷疾病住院费(1日10万韩元) ▲气象特报时医疗机关交通费 ▲气候灾害时救护车移送费 ▲气候灾害精神损失支援。

如果是京畿道居民,无论事故发生在国内哪个地区(首尔或济州等),只要符合保险条款保障范围,都可以获得赔偿。

此外,道民可在事故发生日起3年内追溯申请保险赔偿。

保险金申请需要受害道民准备申请文件,直接向京畿道签约的保险公司(韩华损害保险,呼叫中心02-2175-5030)申请,申保险公司将在审核资料后,于受理后3天内支付保险金。

京畿道预计,像春季、秋季恙虫

病等蜱虫媒介感染病、夏季酷暑引起的温热疾病和冬季寒流引起的寒冷疾病、其他暴雨、暴雪、山火等事故,道民们可以得到多种气候相关损失的支援。

京畿道气候环境能源局相关人士表示:“虽然我们希望市民不要经历任何因无法预测的气候变化带来的疾病和事故,但如果不幸发生了属于‘京畿气候保险’保障范围内的健康损害,请一定要申请并享受保险带来的福利。”

京畿气候保险保障内容及申请方法等详细事项可以通过京畿道官网(www.gg.go.kr/gg_insure)进行确认,也可以通过代表客服中心(02-2175-5030)或环境保健安全科(031-8008-4242)进行咨询。

〈한글 기사 상단〉

과파야스토리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실천

운정와이즈병원, 파주시가족센터에 후원금



파주시가족센터는 지난 4월 18일 운정와이즈병원에서 1,000만원을 후원받아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운정와이즈병원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운정와이즈병원(병원장 최병철, 노성혁), 김은숙 파주시 복지정책국장, 이사숙 파주시가족센터장, 이경아 사랑의 열매 경기북부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은 지난 3월 11일 운정와이즈병원과 파주시가족센터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의 실질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운정와이즈병원이 기탁한 후원금은 파주시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정 및 위기가정 지원, 가족센터 이용자 중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운정와이즈병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의 책임을 다하고자 후원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가족센터와 협력해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숙 복지국장은 “운정와이즈병원의 따뜻한 나눔과 지역사회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으며 이사숙 센터장은 “이번 후원이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가족센터와 운정와이즈병원은 앞으로도 의료·복지 협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특강’ 참여자 모집

파주시 거주 다문화가족 구직자 대상

파주시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기획된 ‘다문화가족 특강’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5월 16일까지 접수하며, 15명 다문화 구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을 준비하는 다문화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구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강은 5월 27일 파주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교육내용은 ▲성공적인 취업 전략 ▲직장 내 기본예절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대비 방법 등에 대해 알려준다.

참여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 여성(한국어 중·상급 수준) 중 예프(F)-6(결혼이민) 또는 예프

(F)-5(영주권) 비자 소지자다. 단, 현재 취업 중이거나 취업 예정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아르바이트 포함), 최근 3년 내 파주시 일자리센터 교육을 중도 포기한 경우, 2023~2024년 일자리센터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파주시 일자리센터 및 문산·운정행복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구글 서식)을 통해 가능하다. 파주시는 이번 교육 이후에도 취업 상담 및 알선 등 사후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일자리센터(031-940-9785)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전교육-

1 일 시: 2025. 4. 28.~ 5. 25.(일) *각 반 시간 및 장소 상이

반명	내용	운영일시	장소
국적취득(필기)	양성평등교육 / (신청각 자료 활용)	4. 28.(월) 13:00~14:00	파주시가족센터
토픽Ⅱ(중급)		4. 29.(화) 13:00~14:00	금촌어울림센터
지역문화 이해(기본)		4. 30.(수) 14:00~15:00	파주시가족센터
초급1		5. 25.(일) 13:00~14:00	파주시가족센터
중급2		5. 11.(일) 13:00~14:00	파주시가족센터

2 참여대상: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25')에 참여하는 자

3 참여장소: 각 반별 상이함

4 신청방법: 센터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통한 신청 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 신청>사전교육 →각 반 신청링크는 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5 유의사항: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에 참여하는 분들 필수 수강 원칙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업이 제한됩니다

파주시가족센터
PAJUSI FAMILY CENTER
여성가족부지원 | 경기도 파주시 위탁

*** 문의사항: 031-949-9164 한국어담당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5. 5. 2. ~ 5. 30.(1차)
2025. 7. 1. ~ 7. 31.(2차)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2007.1.1.~2018.12.31. 출생자, 한국국적)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파주시가족센터 방문접수
(파주시 중앙로 229)

신청문의 031-949-9164
070-7494-2070
070-7494-2078

QR코드를 찍어보세요

파주시가족센터
PAJUSI FAMILY CENTER
여성가족부지원 | 경기도 파주시 위탁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옥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한 '2024년 한국수출입은행 다문화 차량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4월 21일 차량을 인수했다.

이번 차량 지원 공모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시설·단체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11개소에 승합차 5대와 경형 차량 6대를 지원했으며,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경형 차량(레이)에 선정됐다.

공모를 통해 지원받은 차량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온가족보듬사업(취약·위기 가족지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취업

역량강화, 취업기초소양교육)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옥제 센터장은 "최근 시설 차량의 노후화로 인해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 가정 방문 및 발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한국수출입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아 더 많은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7년 6월 개소 이래 취업·사회정착·다문화 인식개선·통합상담·통번역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유한대학교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미래세대 교류

유한대학교(총장 김현중)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5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에 2년 연속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은 국내 대학생에게 일본 현지 어학연수, 직무 기반 현장학습,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유한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속 선정되며,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 역량과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특히 2024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동시에 받으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적극적인 학생 지원과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참여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유한대학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포함한 총 5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국고보조금 850만 원과 대학 자체 지원금이 제공된다. 취업취약계층 학생의 경우, 최대 330만 원의 추가 지원금도 함께 제공된다. 참가 학생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되며, 국내에서 3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일본에 파견된다. 파견 학생들은 16주간 어학 및 직무 교육, 현장실습 등에 참여하게 되며, 유한대학교는 오사카 소재 기업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전공에 적합한 맞춤형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중 총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연수 및 글로벌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하동 지역주민과 함께한 다문화 축제...부천다가, 'K-어울림 축제'서 마음 보태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옥제)는 지난 4월 20일 '2025년 쌍계사 차문화대축제' 마지막 날 축제인 'K-어울림 축제'에 참여했다.

이번 축제는 경상남도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하동 야생차박물관 앞마당에서 4일간 진행됐으며,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산불로 열어 있는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응원하기 위해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부천



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천시외국인주민센터, 하동군가족센터, 통영시가족센터, 송내청소년센터, 도레미협동조합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축제에서는 다문화 전통 공연과 문화체험 부스를 통해 시름에 잠긴 하동군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태국 전통문화인 '소원 등' 만들기 체험, 따뜻한 베트남 전통 만두 나눔, 다양

한 나라의 간식 나눔, 어린이들을 위한 세계 전통모자 만들기 체험 부스 등을 운영했다. 또한, 센터 직원들이 자원해 공연 MC까지 직접 진행하는 등 훈훈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오옥제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선주민과 이주민이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대한민국이 대규모 산불로 힘든 현시점에 지역주민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 같다."라며 "앞으로는 부천에서만 다문화센터가 아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들과 협업 및 소통을 통해 모두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5월 부천에서 진행 예정인 다문화 축제에서 커피 판매, 바자회 등을 진행 예정이다. 이날 수익금은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후원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덕수궁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체험활동 진행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옥제)는 지난 4월 12일 ㈜문화위드유더봄이 운영하는 ‘동행, 국가유산’ 프로그램에 다문화가족 30명과 함께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영웅의 발자취’ 역사문화 체험활동으로 진행됐다.

‘동행,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가 주관, ㈜문화위드유더봄이 기획,운영한다. 다문화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등 문화유산 접근이 어려운 가족을 위한 맞춤형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이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 이 프로그램의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지역 내 다문화가족들에게 뜻깊은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체험은 서울 덕수궁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중

심으로 구성된 미션형 역사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가 가족들은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한 대한제국의 자주적 역사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가족 단위로 공감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역사 전문 해설사의 스토리텔링 해설과 함께 현장을 탐방하고, 직접 미션을 수행하며 역사와 감정을 연결하는 참여형 활동으로 진행돼 교육적 효과와 정서적 울림이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문화가족들은 덕수궁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움과 서대문형무소에서의 아픈 근현대사를 직접 마주하며,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 능력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위드유더봄에서 차량과 식사 등이 무상으로 지원돼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

할 수 있었다. 참여 가족 중 한 대상자는 "덕수궁을 방문하며 고종의 역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서대문형무소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겪은 상상조차 힘든 수감 생활을 알게 되어 너무 슬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상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전했다.

오옥제 센터장은 "이번 탐방은 단순한 외출을 넘어,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배움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기관과 함께 다문화가족에게 적합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자격증도 따고, 취업의 기회 잡아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워킹맘 마스터 ‘토탈공예 자격증반’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옥제)는 동행복지재단과 풀잎문화센터 구로지부와 연계해 지난 3월 5일부터 ‘토탈공예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다.

‘토탈공예 자격증반’ 프로그램은 총 7가지 공예 분야를 배우고 실습하며,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수업이 이뤄진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취업 준비를 위한 수업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센터는 17회기 수업 후 수강생들이 벚꽃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토탈공예 자격증반’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공예 수업을 이어갈 예정이며, 수업에 열심히 참여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가온(070-4130-2148)에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2025 다문화가족축제

꽃길 따라 만나봄

2025년 5월 5일
월요일
석왕사 경내

일시

2025년 5월 5일 월요일

시간

9:00 AM ~ 18:00 PM

장소

석왕사 경내

부스

바자회, 커피 및 음료 판매

대상

센터 이용자 및 지역주민

문의

T 070-4192-3623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che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대포차 운행 및 불법체류 조장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



법무부는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올해 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미등록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했어요.

시행 기간은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이고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함께 참여해요.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및 대포차 운행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과 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에 취업한 미등록 외국인,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등이예요.

이번 정부합동 단속 기간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에요.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에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어 우측, 영어 하단>

파파야스토리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роводит первую в 2025 году совместную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ую проверку незаконно пребывающих иностранцев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с 2023 года реализует «Пятилетний план по сокращению числа нелегальных мигрантов». Особенно в этом году, на третьем этапе реализации, началась совместная проверка с участием смежных ведомств по выявлению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как часть масштабн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ампании.

Срок проведения: с 14 апреля по 29 июня, в течение 77 дней. В проверке участвуют пять ведомств: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Национальная полиц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занятости и тру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и транспорта, а также Морская полиция.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проверки включают: Преступления, совершаемые иностранцами, представляющими угрозу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такие как употребление наркотиков и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одстав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цы, работающие в отраслях, влияющих на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граждан, таких как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доставка; Нарушители миграционного режима, включая брокеров, содействующих незаконному въезду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у. В рамках этой совместн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проверки планируется не только выявление незакон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но и активная борьба с преступлениями, угрожающими безопасности граждан, нарушающими их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и способствующими созданию среды для незакон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К таким правонарушителям будут применяться строгие меры — штрафы, принудительная депортация и запрет на въезд.

В случае отказа от прохождения проверки без уважительных причин будет выдаваться ордер на проведение проверо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А в случае сопротивления или нанесения вреда проверяющим должностным лицам — будет возбуждено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Кроме того, в процессе проверок планируется строго соблюдать правовые процедуры и прилагать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к защите прав человека 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министра юстиции и Ким Сок У отметил:

«Установление строгого порядка пребывания — это основа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с которой согласятся граждане, чувствуя себя в безопасности. Мы и впредь будем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реализовывать политику по снижению числа незаконных мигрантов, включая проверки».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Ministry of Justice to Conduct First Joint Gov. Crackdown on Illegal Foreign Resident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implementing the ‘Five-Year Plan to Reduce Illegal Stay’ since 2023. In particular, this year marks the third year of the plan, and in order to respond in a multifaceted manner at the government level, we have started a joint government crackdown on unregistered foreigners with related ministries.

The enforcement period is 77 days from April 14 to June 29, and five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Justice,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Korea Coast Guard will participate together.

The key crackdown areas are foreign crimes that threaten national safety, such as drug and an illegal vehicle operations, unregistered foreigners employed in industries that encroach on national jobs, such as construction and courier services, and immigration offenders who disrupt the order of residence, such as illegal entry and employment brokers.

During this joint government crackdown period, we plan to crack down on not only illegal stays,

but also various brokerage immigration criminals who threaten national safety, infringe on people's livelihoods, and promote illegal stay environments, and take strict measures such as imposing fines, forced deportation, and entry bans.

In addition, in cases where crackdowns are refused without a legitimate reason, we plan to issue a warrant and conduct crackdowns, and we plan to respond strictly, including through criminal charges, to acts that obstruct the legitimate execution of official duties, such as injuring the crackdown officials.

In addition, we plan to do our best to comply with due process during the crackdown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Acting Minister of Justice Kim Seok-woo said, “The premise of an immigration policy that the public can feel safe and sympathize with is to establish a strict order of residence, so we will continue to consistently pursue policies to reduce illegal residence, such as crackdowns.”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다문화, 다민족 공생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력의 계기 되길”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창립 30주년 기념식...이주민과 지역사회 함께 어우러지다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이사장 임영담)는 지난 4월 13일 오후 3시부터 부천시노동자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0년간 센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며, 이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했다.

기념식은 베트남공동체 우린하나팀의 모자춤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공로패 수여, 지난 30년간의 활동 성과 공유, 전통공연, 여러 나라의 만찬이 준비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공로패는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 최현자 전 사무국

장, 김봉경 사무국장과 이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임청호 양병원장, 경희대학교 코다와 오랫동안 생필품과 후원금을 기부한 예인교회, 김영철 디담병원 총괄본부장 그리고 9개국 공동체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이주민 9명에게 수여됐다.

임영담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30년 동안 부천 지역에서 이주민과 함께하며 의미 있는 길을 걸어왔다”라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원과 다문화, 다민족 공생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9개국 공동체 회장단은 “부천이주민지원센터는 30년간 다양한 국적의 이주

민들과 함께 차별을 넘어 연대의 공동체를 이뤄왔다. 초기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서 출발해, 이제는 문화와 소통의 중심지로 성장했다.”라며 “앞으로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 구성원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용의 부천시장은 “30년 동안 쉽지가 않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에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해야 할 일에 대해 부천이주민지원센터장과 의논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임영담 이사장, 조용의 부천시장,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 서영석 국회의원, 이재영 경기도의회 의원, 장해영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 박찬희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순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원혜영 전 부천시장, 9개국 공동체 회장단, 허원배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 부천YMCA 김기현 사무총장 등 지역사회 내외국인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는 1995년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으로 설립 이후 이주민들의 인권 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김영의 기자



부천다가, 부천시성평등기금지원사업 선정...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양성교육 운영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욱제)는 2025년부천시성평등기금지원사

업에 선정돼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비슷한 배경을 지닌 이웃들을 돕는 서포터즈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서포터즈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에서 더욱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은 오는 7월까지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교육 내용은 ▲한국어 실용 심화 교육 ▲다문화가족 정책 이해 교육 ▲상담 및 동행통역 교육 ▲취업교육 ▲성평등 교육 ▲멘토링 ▲서포터즈 소통 워크숍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습득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주변 이웃과 나눔의 기회를

가지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다문화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지원 17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17주년 기념식 “다 함께 축하해요”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은 개소 17주년을 맞아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 기념식을 가졌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4월 개소 이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돕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다.

기념식에 앞서 센터 이용자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소 17주년 축하 메시지 및 응원 영상을 받았다. 또 센터 캐릭터 만들기 대회를 개최해 총 5명을 시상했다.

기념식에서는 17주년 축하 떡 케이크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직원 등이 참석해 센터 발전을 축하했다. 개소 17주년 기

념 이벤트 관련 영상도 제작해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튜브 및 카카오톡 채널에 올렸다.

임유진 센터장은 “2025년에도 센터 종사자들은 열정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 성실하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즐거운
5월 나들이는 여기

“어린이날 끝났는데 뭐 하지?”를 고민하는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 프로그램이 열린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산하 (재)고양문화재단 고양어린이박물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대상 전통문화 체험 교육 ‘우리 문화 놀이터 : 5월’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지정된 국가기념일 ‘세종대왕 나신 날(5.15)’과 세시풍속 ‘단오(5.31.)’를 주제로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만들기와 놀이 활동으로 구성됐다.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주말 동안 진행되는 이번 시즌 교육은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초·중·고·대학생 가족 대상의 ▲살랑살랑 단오 한마당에서는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전통 문양으로 썸 캐처를 만들고, 팀을 나눠 전통 놀이 대결도 펼쳐진다.

미취학 자녀 가족을 위한 ▲곰지락 우리말 놀이에서는 자음·모음을 활용해 나만의 가방을 디자인하고, 부모와 함께 한글을 활용한 신체 놀이를 통해 세종대왕의 뜻을 즐겁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다. 6월에는 나이별 맞춤형 전시 해설형 프로그램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족 체험 교육도 예정돼 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고양다가, 한국 국적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활동 기회 획득 및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한국 국적 자녀 중 7~18세(2007.1.1.~2018.12.31.)다. 신청 기간은 1차 오는 5월 2일부터 5월 30일, 2차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지원금은 초·중·고·대학생 50만원, 고·대학생 60만원이며, 신청인 명의의 NH농협카드에 포인트를 연 1회 지급한다.

지원금은 학습능력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육 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매, 독서실 이용 등 ‘학업 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매,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다문화가족은 서류 준비 후 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은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938-9801)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이렇게 신청하세요!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 | |
|------|--|
| 지원대상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세~18세 (2007.1.1 ~ 2018.12.31)
※ 한국국적의 자녀 |
| 지원내용 | 초·중·고·대학생 50만원, 고·대학생 60만원
연간 1회 지급 |
| 지원방법 | 신청인 명의의 NH농협(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25년 6월~11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소멸 |
| 신청기간 | 1차: 2025.5.2~5.30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2차: 2025.7.1~7.31 (7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 |
| 신청서류 |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상세), 기본증명서(상세)-귀화자,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일 기준 1년치, 기타 등 |
| 신청문의 |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31-938-9801 |

출산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고양시, 1,327가구 혜택...출산 지원 정책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총 1,327가구에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13억 1천 2백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월세 대출을 이용 중인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연 1회, 최대 4년 지원하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다. 지난 1월 신청을 받은 결과 1,36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자격을 충족한 수혜 가구는 신규 가구

(1회 차) 574가구, 2회 차 320가구, 3회 차 252가구, 4회 차 181가구 등 총 1,327가구이다. 4회 차 수혜자인 덕양구 주민 A씨는 “주택 대출 상환에 아이 출산 후 육아비까지 더해져 매달 고정비 부담이 컸다”라며, “생활비를 줄여주는 지원이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고정비용이 점점 늘어나 걱정이 컸는데, 고양시가 출산 가정을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해 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고양특례시의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청년·신혼부부·다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지자체 사업과는 달리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돼 있다.

또한 고정 지출 부담 완화 효과가 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수도권 가정에 현실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하성 기자

고양시 ‘꽃, 상상 그리고 향기’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 5월 11일까지 개최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가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1997년 처음으로 막을 올린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지난 해까지 877만 명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한 대한민국 대표 화훼 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제17회를 맞이한 고양국제꽃박람회에는 전 세계 25개국 200여 개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다. ‘꽃, 상상 그리고 향기’를 주제로 화려한 야외 전시와 실내 특별 전시, 고양플라워마켓, 다양한 공연·이벤트로 총 28만㎡ 규모를 풍성하게 채운다.

‘꿈꾸는 정원’ 등 야외 정원 활짝

올해 야외 전시는 2025년 가드닝 트렌드 분석 연찬로 다양한 꽃들의 색깔에 기반한 식재 구성과 자연 경관 활용을 강조했다. 야외 전시는 ▲꽃의 향기로 전해지는 문화 ▲꽃과 교감하는 상상의 정원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의 확장 등 총 3부작으로 구성됐다.

주제 광장의‘꿈꾸는 정원(주제 정원)’에는 메인 조형물 ‘황금빛 판다’가 자리 잡는다. 높이 10m, 가로 폭 10m 이상 대형 크기를 자랑하는 황금빛 판다는 꽃의 기운을 모아서 온 세상으로 퍼뜨린다는 뜻을 담아 관람객들을 반갑게 맞이할 계획이다.

한울광장에는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알록달록 티니핑 정원’이 조성된다.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의 캐릭터 4종을 대형 조형물로 만날 수 있으며 각 캐릭터를 상징하는 색깔로 테마 정원이 꾸며진다.

꽃박람회가 열리는 일산호수공원은 꽃과 호수,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고양시 대표 관광 명소다. 이에 착안해 조성된 ‘꽃빛, 물빛 그리고 노을빛 정원’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활용해 각각의 세 가지 빛깔을 담은 정원과 포토존을 감상할 수 있다.

‘꽃과 환상의 정원’에서는 호수를 배경으로 거닐며 동화 테마 정원 속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고양시민 가든쇼’에서는 시민들로 구성된 10개 팀이 직접 디자인하고 조성한 정원을 만날 수 있다. 또 ‘일상의 상상정원’은 자연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야외 웨딩 파티 콘셉트의 9개 포토존이 마련돼 있다. 일산호수공원의 기존 텃

밭정원을 활용한 ‘꽃, 향기 그리고 물의 정원’은 라벤더 등 향긋한 허브류로 꾸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힐링 공간을 선사한다. 또 고양시 시화인 장미로 가득한 ‘장미원’은 사전 온실 개화 작업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피어나는 장미들을 만날 수 있다.

고양시 300여 개 농가에서 생산한 화훼와 식물들로 연출된 고양로컬가든은 지역 내 생산된 약 200여 종, 총 10만 본 이상 꽃들을 사용한다. 선인장과 다육, 분재, 야생화 테마 정원 등을 별도로 조성해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한다.

‘숨 쉬는 실내정원’ 등 특별 전시

화훼산업관과 화훼교류관으로 구성된 실내 전시관에서는 100여 개 이상 국내외 신품종과 우수 품종들을 만날 수 있다. 또 마다가스카르에 자생하는 파키포디움, 인도네시아의 자생 식충식물, 콜롬비아의 레인보우 장미 등 이색 식물도 관람할 수 있다.

‘숨 쉬는 실내정원’은 전시관 내부 벽면을 활용한 약 20m 수직 정원과 공간별 테마를 가진 열린 수평 정원으로 구성돼 열대우림 분위기를 연출한다. 로비와 중앙홀에 조성되는 ‘입체정원(플라워 원더랜드)’은 행잉 플라워, 프리저브드 플라워 등 공중 화훼장식으로 몰입감을 더욱 높인다.

세계 화훼 장식의 최신 트렌드와 디자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글로벌 화예작가 작품전에는 ▲아티 리라(Ahti Iyra, 에스토니아) ▲엘리자베스 뉴 콤브(Elizabeth Newcombe, 영국) ▲아틸라 네메트(Attila Nemeth, 헝가리) ▲베릿 쇼트가르드(Berit Skjøttgaard, 덴마크) ▲주흥모(대한민국) 등 각종 월드컵과 세계 대회에서 수상한 유명 플로리스트 5인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여러 경진대회를 통합한 고양국제 플라워어워드쇼는 전시 연출 4개 부문, 화훼 장식 4개 부문으로 시상이 준비돼 있다. 화훼예술 콘테스트는 ▲프리저브드플라워컵 경진대회(4월 27일) ▲한국 꽃꽂이 대회(5월 1일) ▲아이에이치케이(IHK)컵 플라워디자인 기능경기대회(5월 3일~4일) ▲어린이·중장년 아마추어 꽃장식 대회(5월 6일) 등이 열린다. 송하성 기자



2025 다문화 가정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참여자 모집

모집 대상
서울·경기 거주 소수언어권 다문화 결혼이주민 및 자녀
(9개 소수 언어권: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아랍어)
* 공인어학성적 보유자 우대

모집 일정
교육 접수
2025. 04.21(월)~ 05.09(금) / 면접: 05.14 / 발표: 05.15 ※ 서류 심사 후 면접 1회 (정원의 1.5배 선발)

교육 과정
관광안내 실무 교육: 2025.05.19 ~ 05.30 (2주) 수업시간: 10:00 ~ 17:00
필기시험 대비 과정: 2025.06.09 ~ 07.18 (6주) 수업시간: 10:00 ~ 13:00 (월, 화 진행)
면접시험 대비 과정: 2025.09.01 ~ 11.14 (10주) 수업시간: 10:00 ~ 13:00 (월, 화 진행)
* 필기·면접시험은 스타디그룹이 진행합니다 ※ 본 교육은 전액 무료로 운영됩니다. (교재 및 실습 포함)

교육 기간 및 장소
2025년 5월~11월 /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5층 (종각역, 을지로역 이용)

수강 혜택
- 실무교육 이수 시 필기시험 일부 과목 면제(관광법규, 관광학개론)
- 스터디 지원 + 수료증 발급 + 멘토링 프로그램
- 한국어 시험 대비 집중 교육 진행: 관광안내 실무교육 ⇨ 필기시험대비 과정 ⇨ 면접시험대비를

접수 및 문의
- 접수: 한국관광공사 관광e배움터 신청 홈페이지(https://m.site.naver.com/1GEE8) 또는 QR 접속
- 문의: 박병현 매니저 (bang1002@wizl.co.kr) T. 02)582-0722
- 주관: 한국관광공사





광명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지원패키지 ‘내가 만드는 한식 집밥 요리’ 진행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4월 22일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지원패키지 <내가 만드는 한식 집밥 요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지원패키지는 결혼이민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착과정을 설계하고, 관련 서비스를 탐색하는 등 자립능력을 키우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진행된 <내가 만드는 한식 집밥 요리>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음식문

화에 보다 친숙해지고, 가정에서도 활용할 가능한 실용적인 요리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1회기 간장제육과 단무지 무침 ▲2회기 반찬 3종(깻잎지, 어묵 무침, 계란장) ▲3회기 김밥과 계란국 ▲마지막 회기 잡채와 호박전 등을 만들었다. 첫 회기에는 간단한 간장제육 요리 만들기로 시작해 회차가 거듭될수록 난이도를 높여 마지막 회기에는 잡채 등 기술이 필요한 대표 한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

여한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는 “이번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집에서도 요리를 하며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며 “다양한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인 카자흐스탄 출신 결혼이민자는 “요리 프로그램은 초기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 입국한지 오래된 사람도 한식을 배울 수 있게 돼 좋았다.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남은정 센터장은 “앞으로도 결혼이민

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지원패키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반기인 9월에 한국 전통 음식에 흥미가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명절’ 음식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문의 02-6265-1366

송하성 기자

2025 광명시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사업

기초학습지원

광명시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자녀의
국어, 수학 기초학습을
지원합니다!

모집대상 광명시 거주 다문화, 외국인, 중도입국 가족 자녀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아동

교육내용 기초 국어 기초 수학 사회 영역 중도입국 한국어

교육장소 광명시가족센터 내 배움터

교육기간 2025. 3월 ~ 11월
(연중 상시 무료운영 및 접수)

접수방법 전화문의 > 수업상담 진행

문의 가족지원3팀 (담당 박희상 : 070-4725-2723)





광명시가족센터

‘책과 예술이 있는 토요일’ 광명도서관

가족 문화공연, 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개최

광명시(시장 박승원) 광명도서관은 토요일에 도서관을 방문하는 가족들이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도토리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도토리 프로젝트’는 ‘광명도서관에서 토요일에 우리 만나요 프로젝트’의 줄임말로, 평일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주말 여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도서관에서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올해 도토리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공연은 오는 5월 17일 열리는 마술 공연 ‘오즈의 신기한 마법도서관’이다. 오는 28일부터 광명시도서관 누리집(gmlib.gm.go.kr)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후 오는 7월 19일 그림책 낭독극 ‘호랑땃집’, ‘할머니의 용궁여행’과 10월 18일 가족뮤지컬 ‘아임(I’m) 피노키오’ 등 가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광명도서관(02-2680-

54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광용 광명도서관장은 “도토리 프로젝트 7주년을 맞아 더욱 다채로운 가족 문화예술 공연을 준비했으니, 도서관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명도서관은 일상에서 예술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하도서관은 베테랑 작가와 함께 초단편 소설을 완성하는 글쓰기 프로그램 ‘초단편 새싹작가’ 참여자 1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새싹작가 성장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며, 상반기는 초단편 소설을, 하반기는 미스터리 소설을 주제로 진행된다.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작가의 첨삭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광명시도서관 정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명시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02-2680-0930 이지은 기자

“Học sinh THCS và THPT thuộc gia đình đa văn hóa cũng có thể tham gia chương trình hỗ trợ học tập miễn phí~” ‘1318 Hỗ trợ học tập online’

Tỉnh Gyeonggi hiện đang tuyển 800 học viên cho khóa đầu tiên của chương trình ‘1318 Hỗ trợ học tập online’ trực tuyến cho đến ngày 30 tới, nhằm thu hẹp khoảng cách giáo dục trong giới trẻ và tạo điều kiện hỗ trợ cơ hội học tập một cách bình đẳng cho các em.

‘1318 Hỗ trợ học tập online’, bắt đầu hoạt động vào năm ngoái, là một trong những dự án cung cấp những nội dung học tập trực tuyến dựa trên AI (trí tuệ nhân tạo), cùng với dịch vụ hướng dẫn 1:1 dành cho học sinh THCS, thanh thiếu niên cùng độ tuổi và học sinh năm nhất THPT cư trú tại Tỉnh Gyeonggi. Tổng cộng sẽ có 9 buổi hỗ trợ học tập tùy theo năng lực của từng học viên trong khoảng thời gian là 2 tháng.

Bắt đầu từ năm nay, đối tượng hỗ trợ sẽ được mở rộng từ học sinh THCS và thanh thiếu niên cùng độ tuổi đến học sinh năm nhất THPT. Thời gian học đã cũng sẽ được kéo dài từ 1 buổi/tuần lên 2 buổi/tuần nhằm giúp việc hỗ trợ học tập được chuyên sâu hơn.

Học viên sẽ được nhận sách giáo khoa EBS và các khóa học trực tuyến phù hợp với bản thân sau khi thực hiện quy trình đánh giá năng lực học tập qua AI và các bài kiểm tra.

Những nội dung hỗ trợ bao gồm ▲ Xác định năng lực học tập của từng cá nhân qua các bài kiểm tra đánh giá bằng AI ▲ Hỗ trợ sách giáo khoa EBS và

các khóa học trực tuyến ▲ Hỗ trợ 9 buổi hướng dẫn trực tuyến 1:1 (bao gồm 1 buổi OT) ▲Chương trình trực tiếp nhằm tạo động lực trong học tập và hướng nghiệp (thông tin chi tiết sẽ được hướng dẫn sau).

Những thành viên tham gia hỗ trợ học tập là những bạn học sinh có thành tích học tập xuất sắc do Tỉnh Gyeonggi và EBS lựa chọn. Bên cạnh đó, những bạn học viên còn có cơ hội trải nghiệm nhiều hoạt động học tập đa dạng như tham quan các Trường đại học và Trung tâm đào tạo phát triển nghề chuyên môn.

Những thanh thiếu niên muốn tham gia có thể đăng ký trên trang web ‘1318 Hỗ trợ học tập online’ (1318study.kr).

Để đăng ký, các bạn cần chọn mục ‘đăng ký’ - ‘Hỗ trợ học tập’ ở đầu trang web này, sau đó chọn mục ‘Tuyển học viên khóa đầu tiên năm 2025’, nhập thông tin họ tên và số CMND và chọn ‘Xác nhận thông tin đối tượng’.

Tỉnh Gyeonggi hiện có kế hoạch ưu tiên tuyển chọn học viên thuộc diện khó khăn về mặt xã hội và kinh tế (người nhận hỗ trợ sinh kế cơ bản, cư dân tại các khu vực làng xã, v.v.), trong đó có con em từ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Tỉnh Gyeonggi đã chỉ định Đài truyền hình giáo dục EBS Hàn Quốc làm cơ quan vận hành chương

trình trong năm nay và bắt đầu tuyển sinh vào tháng 3 cũng như cung cấp chương trình hướng dẫn học tập từ tháng 5 tới. Dự án sẽ được triển khai trong 5 giai đoạn, với 800 thanh thiếu niên mỗi giai đoạn, nên sẽ có khoảng 4.000 thanh thiếu niên có thể tham gia miễn phí.

Hong Seong-deok, Trưởng phòng Giáo dục trọn đời Tỉnh Gyeonggi, cho biết “Chúng tôi hy vọng sẽ có nhiều người trẻ hơn nữa có thể phát triển các kỹ năng học tập cũng như tự định hướng tương lai thông qua dự án 1318 Hỗ trợ học tập online lần này. Bên cạnh đó, chúng tôi cũng sẽ tích cực hỗ trợ các em học sinh để các em có thể hứng thú hơn trong việc học tập và đạt được những thành tích xứng đáng thông qua chương trình này”.

Bên cạnh đó, trong một cuộc khảo sát những người tham gia ‘Dự án 1318 Hỗ trợ học tập online’ vào năm ngoái, có 86,1% người dùng trả lời tích cực cho câu hỏi ‘Dự án 1318 Hỗ trợ học tập online đã giúp ích rất nhiều trong việc giảm chi phí giáo dục tư nhân’ và 90,3% người dùng trả lời tích cực cho câu hỏi ‘Dự án này giúp ích rất nhiều cho các em học sinh trong việc chuẩn bị cho các kỳ thi, quản lý điểm số cũng như tự học’. Để biết thêm thông tin chi tiết, các bạn vui lòng liên hệ đến số 1544-9936 nhé ~~ 파파야스토리

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ก็สามารถรับการชดเชยจาก “โรคและอาการบาดเจ็บ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สภาพอากาศ” ได้!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กลายเป็นจังหวัดแรกในประเทศที่นำ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อากาศมาใช้

เมื่อวันที่ 11 เมษายนที่ผ่านมา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ได้ลงนามข้อตกลงกับกลุ่มบริษัทประกันภัยฮันฮวา (ร่วมกับบริษัทประกันภัยนงฮยอบและเอช) และจะชดเชยให้กับประชาชน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ทุกคนสำหรับโรคและการบาดเจ็บ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สภาพอากาศจนถึงวันที่ 10 เมษายน ของปีหน้า

“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อากาศคยองกี” ซึ่งนำมาใช้เพื่อปกป้องสุขภาพและ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ของประชากรในจังหวัดจากวิกฤตสภาพอากาศ จะให้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ในกรณีต่างๆ เช่น ▲ค่าตรวจร่างกาย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ความร้อนและความเย็น ▲ค่าตรวจร่างกาย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 โรคติดเชื้อ ▲เงินชดเชยจำนวนคงที่สำหรับอุบัติเหตุที่เกิดขึ้นเกินกว่า 4 สัปดาห์อันเนื่องมาจากค่าเตือนสภาพอากาศพิเศษ

ประชาชน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ทุกคน รวมถึง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ขึ้นทะเบียน จะลงทะเบียน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อากาศโดยอัตโนมัติโดยไม่ต้องมีขั้นตอน แยกต่างหาก ทำให้สามารถรับเงินชดเชยประกันภัยสำห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ด้านสุขภาพ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สภาพอากาศได้

ตัวอย่างเช่น หากแรงงานตามฤดูกาลชาวต่างชาติล้มลงขณะทำงาน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ช่วงฤดูร้อน จะได้รับเงินค่าตรวจร่างกาย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 ความร้อน 100,000 วอน (จำกัด 1 ครั้งต่อปี) แม้จะได้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 เช่น อาการ

หิมะกัดจากความหนาวเย็นในฤดูหนาว ก็ยังสามารถ รับเงินค่าตรวจร่างกายจากความหนาวเย็นจำนวน 100,000 วอนได้เช่นกั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ประชาชนในประเทศที่มีความเสี่ยงต่อสภาพอากาศประมาณ 160,000 คน (ผู้ที่มีสิทธิ์เข้า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จัดการสุขภาพของ ศูนย์บริ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ของเมือง/อำเภอ) สามารถ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เพิ่มเติม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รายการ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พื้นฐาน ได้แก่ ▲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ในโรงพยาบาลเนื่องจากความร้อนและความเย็น (100,000 วอนต่อ 1 วัน) ▲ค่าเดินทางไปสถานพยาบาลในกรณีที่มีรายงาน สภาพอากาศพิเศษ ▲ค่ารถพยาบาลหลังการเดินทางในกรณีที่เกิดภัยพิบัติทางสภาพอากาศ และ ▲การสนับสนุนสำห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 ทางจิตใจที่เกิดจากภัยพิบัติทางสภาพอากาศ

หากเป็นประชาชนใน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จะ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สำห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จากอุบัติเหตุตามที่ระบุไว้ในข้อกำหนดและเงื่อนไข โดยไม่คำนึงว่าอุบัติเหตุเกิดขึ้นที่ใด (เช่น โซล หรือเจจู) และประชาชนของจังหวัดที่ได้รับการ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สามารถ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ย้อนหลังได้ ข

3 ปีนับจากวันที่เกิดอุบัติเหตุ

เพื่อขอรั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ประกันภัย ประชาชนของจังหวัดที่ได้รับการ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จะต้องเตรียมเอกสารขอรั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และยื่นคำร้องโดยตรง ไปยังบริษัทประกันภัยที่ทำสัญญากับ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บริษัทประกันภัยฮันฮวา, คอล

เซ็นเตอร์ 02-2175-5030) บริษัทประกันภัยจะตรวจสอบเอกสารและชำระเงินผลประโยชน์ประกันภัยภายใน 3 วันนับตั้งแต่วันที่ได้รับความร้อง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คาดว่าประชาชนในจังหวัดจะ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สำหรับ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ต่างๆ 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สภาพอากาศ เช่น โรคติดเชื้อที่ เกิดจากตัวไร่อ่อน เช่น โรคซูบากาชิ(ไข้รากสาดใหญ่)ในฤดูใบไม้ผลิและฤดูใบไม้ร่วง, โรค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ความร้อนที่เกิดจาก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ในฤดูร้อน, โรค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ความหนาวเย็นที่เกิดจากคลื่นความหนาวเย็นในฤดูหนาว รวมถึงอุบัติเหตุอื่นๆ ที่เกิดจากฝนตกหนัก, หิมะตกหนัก และไฟฟ้า เป็นต้น

เจ้าหน้าที่จากสำนักงานสภาพอากาศและสิ่งแวดล้อม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กล่าวว่า “แม้สิ่งที่ดีที่สุดคือประชาชนในจังหวัดจะไม่ต้องประสบกับโรค หรืออุบัติเหตุที่เกิดจาก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ซึ่งไม่อาจคาดเดาได้ แต่หากเกิด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ต่อสุขภาพในลักษณะที่อยู่ภายใต้ 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ของ ‘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อากาศคยองกี’ ก็ขอให้ยื่นเรื่องเพื่อรั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จากประกันภัยนี้”

ข้อมูลโดยละเอียดเกี่ยวกั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ประกันภัยสภาพอากาศคยองกีและวิธีการยื่นคำร้อง 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ได้ที่เว็บไซต์ของจังหวัด คยองกี (www.gg.go.kr/gg_insure) หรือสามารถรับคำแนะนำผ่าน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หลัก (02-2175-5030) หรือสำนักงานด้านสิ่งแวดล้อมและ 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031-8008-4242) <한글 기사 20면> 파파야스토리

자동차 종합검사

- **검사대상** : 자동차 보유자
- **검사기간** : 종합검사 유효기간 전 90일 / 유효기간 후 31일 이내(자동차등록증 확인)
-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02-2680-2710
-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지연 과태료**

구 분	최초 30일까지	3일 초과시 1일 추가액	115일 최고
자동차 검사	40,000원	20,000원	600,000원

- **검사 문자 알림 신청**
교통안전공단 누리집(TS2020.kr)이나 콜센터(1577-0990)에서 신청 가능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 **가입대상** :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차량 보유자
- **가입방법** : 자동차보험 만료 전 기존 보험사로부터 보험 종료 사실이 통지되면 종료 기한 내에 기존 보험사 또는 타 보험사를 통해 보험 가입
※ 단 1일이라도 미가입 기간이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에 유의
-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02-2680-2710
- **의무보험 가입 지연 과태료 부과 기준**

구 분	1~10일까지 부과액	10일 초과 시 1일 추가액	상한액 (대인, 대물 포함)
이륜자동차	9,000원	1,800원	30만 원 (172일 이상)
비사업용 자동차 (자가용)	15,000원	6,000원	90만 원 (158일 이상)
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65,000원	18,000원	230만 원 (132일~158일 이상)

2025년 생활종합안내서 **광명에서 시작해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경형, 전기자동차 등
- **문의** : 차량등록사업소 02-2680-6228

감면의 종류	관련법	감면대상	감면 조건	감면 조건	비고
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장애 1~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받은자)	100% (보철 생계용) : 공동영의 가능	- 1년 이상 보유 조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 - 승차 정원 7~10인승 이하 승용 -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국가유공자 증명서, 감면신청서
장애인 자동차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2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일정기준 대상자 까지 감면)			장애인증명서, 감면신청서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의2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공동 3자녀(100%) <최소 납부제 적용> 2자녀(50%) 2025.1.1 시행	위 조건과 동일 (단, 승용차 배기량 제한 없음) - 6인승이하 승용차 : 취득세 140만 원 초과 부분은 납부 - 그 외 차량 : 취득세 200만 원 초과시 전세금액의 15% 부과 - 6인승이하 승용차 : 취득세 140만 원 초과 시 70 만원 한도감면	가족관계 증명서, 감면신청서
경형자동차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7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차	100% 75만 원 공제	경형승합화물(리보디마스 등) 비영업용 경형 승용차 (취득세 75만 원 초과 부분 납부)	800cc→ 1,000cc 변경 (2008.1.1)
(수소) 전기 자동차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6조	전기차량 구매자	140만 원 공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6호에 따른 자동차로 고시된 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감면

※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취득세 감면율이 100%인 경우에는 먼저 규정에도 불구하고 8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세 200만 원 이하는 제외한다.



광명사랑화폐

광명사랑화폐 카드 발급

- **신규발급** : 경기지역화폐 어플 및 관내 농협
⇒ (어플) 회원가입-거주지 선택-새로 신청하기-카드 선택-간편 신청
- **재발급** (분실) 경기지역화폐 어플 - 내지갑 - 분실신고 / 재발급
(추가) 경기지역화폐 어플 - 내지갑 - 맨하단 '카드 추가 신청하기'
- **문의** : 코나아이 1899-7997, 기업지원과 02-2680-6933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신청

- **신청자격** : 연 매출 12억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대표자 본인)
 -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 상점가일 경우 연 매출 기준 예외
 - 단, 일부 업종(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https://www.gmoney.or.kr/>
⇒ 회원가입(로그인) > 가맹점 이용 안내 > 가맹점 신규등록
 - (방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참 ⇒ 광명시청 기업지원과 전통시장지원팀(제1별관 2층)
- **혜택**
 - 광명사랑화폐 카드수수료 지원(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
 - 신용카드 수수료 대비 0.25%p 절감, 매출증대, 이벤트 참여 기회 등
- **문의** : 기업지원과 02-2680-6933

2025년 생활종합안내서 **광명에서 시작해요**

시민생활안전보험 운영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1년(소멸시효 : 사고일부터 3년)
- **보장항목**

담 보 구 분	보장 금액	비 고
①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1,000만 원	15세 미만 사망 담보 가입 불가
②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1,500만 원	
③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④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1,500만 원	15세 미만 사망 담보 가입 불가
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1,500만 원	
⑥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택시·버스 제외)	50만 원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 기준 적용
⑦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	부상등급 : 1~14급 / 부상 등급 기준 적용
⑧ 화상 수술비	50만 원	수술 1회당 / 심재성 2도 이상

- **보험청구** : 피보험자 본인(본인 사망 시 법정 상속인)
청구서류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문의** : 안전총괄과 02-2680-0701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배부

전입한 사람이 전 거주지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당 최대 20장까지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 배부

- **신청방법** :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입 사실 및 현재 거주지 여부 확인)
- **문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신중년 위한 디지털학습공간

광명시, 정보 격차 해소 ‘디지털 아지트’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신중년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학습 공간을 마련한다.

광명시는 5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광명시인생플러스센터 정보배움실에서 '신중년 디지털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신중년 디지털 아지트’는 스마트폰 기
초부터 인공지능(AI) 앱 활용까지, 디지
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
구나 부담 없이 찾아와 자유롭게 묻고
배우며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열린
교육 공간이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폰 기본 기능 ▲ 카카오톡 활용법 ▲사진 관리 및 앱 설치·삭제 ▲보이스피싱 차단 방법 ▲

ChatGPT(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등 일
상생활과 밀접한 기초 디지털 활용 관련
내용이다. 특히 신중년 디지털 아지트는
광명시인생플러스센터 ‘인생+빛나는 봉
사단’ 소속 신중년 활동가들이 직접 운영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은 센터의 ChatGPT 과정을 수료하고 지난해 10월 디지털 동아리를 결성해 '중장년 일자리 만남의 장' 박람회 부스를 운영하는 등 실천 경험을 쌓았다. 신중년 활동가들은 디지털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신중년 디지털 아지트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광명시민 누구나 방문해 무료
로 참여할 수 있다.

이경미 일자리창출과장은 “신중년 디지털 아지트는 신중년 봉사단이 주도하는 의미 있는 디지털 나눔 활동”이라며 “신중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02-2680-6932 이지은 기자

두가지 언어로 이야기해요

광명시가족센터,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2025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TALK(톡), TALK(톡) TWO(투)언어’를 진행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부모 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유아(4~7세)와 초등학교 저학년(8~10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그림책을 활용한 이
중언어 상호작용 방법(2회기) ▲보드
게임을 활용한 부모교육(2회기)과 함
께 다문화가정이 피크닉 활동을 진행
하며 가족 간의 힐링을 통한 가족 관
계 증진을 이루었다. 또한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가족 공감대도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엄마는 “우리 아이가 커서 자랑스럽게 엄마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은정 센터장은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아이의 정체성 확립과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광명시가족터는 다양한 환경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광명시가족센터는 이중언어환경조성 사업 외에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복지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02-6265-1366

이지은 기자

광명 생활종합안내서 활용해요~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주요 정책
과 지원사업을 담은 2025년 광명시
생활종합안내서 ‘광명에서 시작해요’
를 제작해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광명시로 새로 유입된 시민들의 입
주 초기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안
내 책자를 제작했다는 것이 시의 설
명이다. 작년부터 재건축·재개발 사
업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세
대가 1만 세대를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광명시 외 지역에서 이

주한 세대이다. 광명시는 책자에 지역 현황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료,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광명시 생활 정보를 담았다. 책자는 광명1동과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업신고를 할 때 받을 수 있으며, 광명시청 누리집(gm.go.kr)에서도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광명시는 신축아파트에 이동
민원실을 설치해 전입신고 등 여러
행정 업무를 윈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지는 기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회장 김병수 김포시장)가 지난 4월 17일,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회원도시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교육과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과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병수 협의회장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2012년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이 공동 출연해 설립한 국내 최초의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 공익재단이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와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사회를 더욱 포용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송하성 기자

김포시, 일상 속 야간 문화 확대해 시민체감도 높인다

야간경제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김포시가 올해 ‘야간에도 머무르고 싶고 안전한 김포’ 조성을 본격화한다. 김포시는 올해 야외 돛자리극장, 야간굴 뚝점등식 등 10여개 부서의 12개의 야간정책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전호다목적구장의 24시까지 확대 운영, 벚꽃축제 야간 진행 등에 이은 것으로, 야간 야외도서관, 달빛 운동교실 등 올해 체육·문화·보육·의료 등 다방면에서 야간시설운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야간랜드마크 및 계절별 핫플레이스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야간도시는 도시경제침체를 극복하는 세계적 추세로, 시는 지난해 3월 야간도시정책 전담 TF를 구성한데 이어 하반기에 신야간정책팀을 신설하며 야간에도 머무르고 싶고 안전한 김포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어린이날 야외 영화관, 월곶 야간곤충탐사 등 문화프로그램부터 접근해온 김포시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설 야간운영을 도입, 차별화된 도시경쟁력 상승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과 연계한 야간경제 활성화, 야간활동 확대에 따른 야간순찰 강화 및 범죄안전 환경 조성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여성가족부

김포시가족센터

한국어

www.familynet.or.kr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이렇게 신청하세요!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2007. 1. 1. ~ 2018. 12. 31. 출생자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장소

'25. 5. 2. ~ 5. 30., 7. 1. ~ 7. 31.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신청 시 구비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교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25년 6월부터 11월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후 소멸

신청문의

031) 996-5920(대표전화)

031) 996-5923(직통전화)

여성가족부

김포시가족센터

일본어

www.familynet.or.kr

「多文化家族の子ども教育活動費」

このように申請してください!

学校生活への適応や学習に困難を経験している低所得の多文化家族の子どもに対して、学業や進路に対する能力を開発できるよう、教育活動費を支援します。

支援対象

基準中位所得100%以下の多文化家族の7~18歳の子ども

* 2007年1月1日~2018年12月31日に出生した者 / 但し、教育給与との重複支援は不可

申請期間/場所

2025年5月2日~5月30日、7月1日~7月31日 / 住所が登録されている地域を管轄する家族センターまたは多文化家族センター

* 申請時の必要書類 : 多文化家族の子どもへの教育活動費支援申請書、家族関係証明書住民登録簿本、2025年の健康保険料の納付確認書など

支援内容

多文化家族の子ども一人あたり 小学生は年間40万ウォン、中学生は年間50万ウォン、高校生は年間60万ウォン

* 2025年6月~11月末まで使用可能、その後は失効

支援方法

申請者名義のNH農協カード(チェウム)にポイントで支給

* 2025年6月から11月末まで使用することができ、その後は消滅

申請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

☎ 031) 996-5920

☎ 031) 996-5923

Чтобы упростить въезд для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и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по региональным визам»

2 апре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объявило о запуске «Пилотного проекта по региональным визам», одного из ключевых направлений новой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рассмотрения Комитетом по региональным визам, 14 круп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единиц были выбраны в качестве участников пилотного проекта. <Фото = PAPA Story, не имеет прям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статье> Если просто объяснить, то суть пилотного проекта по региональным визам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смягчает требования к выдаче виз исключительно для определённых регионов, чтобы нужные этим регионам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чие могли проще туда въехать. Например, если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требуются специалисты в сфере промышл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то при выдаче визы и иностранцам в этой сфере требования к образованию или опыту работы будут ослаблены только для Кёнгидо.

***Как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ект региональных виз?** : С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о февраль текущего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ринимало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екте от всех круп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а затем

в процессе общения с ними сформировало подробные планы. То есть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органы власти совместно разработали систему региональных виз.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о временно обеспечит стабильное проживание иностранцев и активизирует местную экономику.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стартовал 2 апреля. <한글 기사 지난호 13면>

***Какие регионы участвуют в проекте?** :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по студенческой визе (D-2) подали 10 регионов (Сеул, Пусан, Инчхон, Кванджу, Канвондо, Чхунбук, Чхуннам, Чоллабукто, Чолланамдо, Чеджу), а по визе для особых вид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E-7) — 6 регионов (Тэгу, Тэджон, Ульсан, Кёнгидо, Кёнбук, Кённам). Виза E-7 охватывает 87 профессий в трёх категория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E-7-1), полу-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E-7-2) и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рабочие (E-7-3),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системы баллов для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чих (E-7-4).

***Как будет работать E-7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 Четыре региона (1,210 человек) были отобраны для участия в пилотном проекте, представившие адаптированные визовые требования, связанные со страте

гиями развития своих отраслей. В случае Тэгу, если предприятия из пяти ключевых отраслей (жизненные науки, робототехника и др.) нанимают специалистов, требования к образованию и опыту будут ослаблены. В Кёнгидо будут ослаблены требования к образованию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инженеров,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данным и сетям, владеющих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В Кёнбук будут смягчены требования к образованию для выпускников зарубежных технических вузов, утверждённых губернатором. В Кённам — требования к опыту работы для специалистов, работающих в зарубежных филиалах 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сфере.

***Как будет работать D-2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 В проекте участвуют 10 регионов (4,420 человек), представивших визовые условия, связанные с ключевым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отраслями. В Сеуле, Пусане, Кванджу, Канвондо, Чхунбук, Чхуннам — для привлечения студентов в области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робототехники, ИИ, аккумуляторов и биотехнологий смягчены финансовые требования (кроме Сеула). В Сеуле, Канвондо, Чхунбук, Чхуннам также увеличено разрешённое время для подраб

отки. В некоторых регионах (Пусан, Инчхон, Канвондо, Чолланамдо) разрешена стажировка в течение учебного семестра. В Чоллабукто, Чолланамдо и Чеджу —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кадров в корневых отраслях и туризме смягчены финансовые требования, увеличено разрешённое время для подработки, а в Чолланамдо дополнительно расширен диапазон разрешённой занятости при наличи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ертификата. В Инчхоне для студентов, обучающихся в местных филиалах зарубеж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максимальный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увеличен с 1 года до 2 лет, что обеспечит удобство для талантливых студентов. 14 регионов, отобранных на заседании комитета, будут совместно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реализовывать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до 2026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ланирует провести оценку эффективности проекта, включая: ▲ уровень заполнения квот по визам ▲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ах социальной интеграции ▲ уровень нелегаль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 долю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в регионе. На основе этих данных будет определено, нужно ли корректировать квоты или продолжать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外国人留学生、韓国中小企業人材として育成... 参加者を募集中」 유학생 인력양성

外国人留学生、企業の専門人材として育成

中小ベンチャー企業振興公団は、外国人留学生を中小ベンチャー企業のカスタマイズされた専門人材として育成するための「グローバル人材就職先導大学」事業を実施しています。

グローバル人材就職先導大学は、外国人留学生を対象に韓国国内就職能力を強化し、実務中心の教育と現場プロジェクト連携を通じて中小ベンチャー企業の人材難解消を支援するための事業です。 選考評価を経て、計10大学が最終選定されました。

選定された大学は ▲京畿科学技術大学 ▲京城大学 ▲国立昌原大学 ▲大田科学技術大学 ▲東明大学 ▲ソジョン大学 ▲ソンムン大学 ▲新安山大学 ▲ウソン大学 ▲忠北保健科学大学の10大学です。

中小ベンチャー企業振興公団は各大学に最大1億5000万ウォンを支援し、外国人留学生の就職能力を高め、韓国内の中小ベンチャー企業への円滑な採用を支援する多様なプログラムを運営する計画です。

今回選定された10大学は、中小ベンチャー企業への就職を希望する卒業予定留学生と求職ビザを保有する卒業生を募集し、彼らを対象に中小ベンチャー企業への理解、韓国語教育などの1段階の就職能力強化プログラムとインターンシップ、現場実習または産学協力プロジェクトなどの2段階の就職実践準備プログラムまで合計200時間以上を運営します。

「グローバル人材就職先導大学」で教育を修了した外国人留学生は、韓国内の中小ベンチャー企業への就職が可能になります。中小ベンチャー企業振

興公団は今後も事業を拡大し、中小ベンチャー企業の人材難を解消できるよう支援する計画です。

外国人留学生、輸出専門人材として育成

中小ベンチャー企業振興公団は、韓国内に滞在する外国人留学生を輸出専門人材として育成する「K-輸出戦士アカデミー」の第1期受講生を募集します。

アカデミーは釜山外国語大学が運営する学校企業である「GLPグローバルグループ」が運営します。 第1期課程は5〜8月、第2期課程は8〜11月に行われます。

専門学士以上の卒業(予定)者のうち、留学(D-2)または求職(D-10)ビザを所持している外国人留学生300人を選抜します。 教育はオンライン・オフライン並行方式で行われ、教育費は

全額政府が支援します。

アカデミーは200時間のカリキュラムで、貿易実務理論と輸出・マーケティング実習、就職コーチングなど実務中心の教育を提供します。この課程を修了すると、海外営業および輸出入職務に就職を希望する留学生がE-7ビザを取得するのに役立ちます。

修了生は、留学生専用の就職マッチングプラットフォームである「K-Workプラットフォーム」を通じて、中小企業への就職をつなぎます。

1期コースへの参加を希望する留学生は、5月2日までに韓国語の履歴書を作成し、Eメール(worldcareer@naver.com)で提出します。関連問い合わせは、GLPグローバルグループソウルセンター(02-6245-3579)または釜山センター(051-509-5996)まで。

<한글 기사 16면> 파파야스토리



3. 不知道就会轻易触犯的违法行为



注意销售/购买



禁止大麻成分

❗ 韩国严惩制造・走私毒品类或携带・吸毒等行为, 违反时, 会成为强制遣返对象。

- 不可在网上销售或购买成分不明的药物、毒品等。
- 不可以携带含有大麻成分CBD (大麻二酚) 的产品 (果冻、糖、精油等) 入境。

※ 警察厅强力打击 ▲ 供应非法毒品类犯罪者 ▲ 外籍毒贩 ▲ 利用互联网 (暗网) ・SNS等的贩毒者。



注意凶器的携带

❗ 在无正当理由时, 不可携带刀・铁棍・铁锯等对人体的生命或身体造成重大危害的凶器。

※ 违反时, 处于10万韩元一下的罚金、拘留或罚款

即使没有身体接触, 也会受到处罚的犯罪行为



发送令人厌恶的内容



非法偷拍



携带/购买非法偷拍品

- 用互联网・手机等传送性骚扰・引起厌恶感的文字・照片等行为
- 未经同意, 偷拍・上传他人身体部位的行为
- 携带・购买・保管・观看非法偷拍品的行为

❗ 我们严惩非法偷拍他人的身体、传送性爱视频等行为。



严惩赌博行为

❗ 不可以赌钱赌博, 提供赌博场所时, 也会按赌博行为来严惩。



严惩侵占他人财物行为

❗ 随意拿走停靠在路边的貌似没有主人的自行车等行为, 会被看作偷窃或侵占罪给予处罚。



17岁以上需携带

❗ 17岁以上外国人要随身携带护照・外国人登录证等, 违反时, 会处于罚金 (100万韩元以下)。

- 如果使用他人的身份证或有意隐瞒身份时, 会按违反出入境管理法及妨碍公务罪给予处罚。



严惩跟踪骚扰

❗ 在对方已表明不愿意向的情况下, 无正当理由并数次向对方、其同居人及其家属进行上门、联系 (电话、短信等)、寄快递等骚扰时, 会按跟踪骚扰罪给予处罚。



严惩非法上传

❗ 在网上将他人的信息提供、发布、上传到第三者手中, 从而引发对方的不安感或恐惧心的行为会给予处罚。



严惩无证驾驶



严惩酒驾



严惩驾驶非法车辆

❗ 驾驶车辆・摩托车・电动滑板车时, 严惩如下情形。

- 无证驾驶车辆・摩托车・电动滑板车时
- 酒驾时
- 驾驶未经合法过户的车辆 (又名非法登记车辆) 时

基本秩序违反行为

1 不可以随意扔烟头、口香糖、垃圾等。



2 不可以公共场所随意吐痰或在禁烟场所吸烟。



3 摩托车・电动滑板车驾驶员需要佩戴安全头盔。



4 电动滑板车不可载2人以上。



5 要在天桥或斑马线 (绿灯) 过马路。



❗ 违反基本秩序, 也会处于收缴违章罚款或罚金等处罚, 请注意。

紧急报警App



可在Playstore / Onestore / Appstore下载



2. 报警・咨询电话号码

紧急报警

向警察紧急报警 112

火灾・急救患者・紧急救助报警 119

警察咨询

关于警察业务的一般咨询 182

校园暴力咨询 117

外籍女性专门咨询

首尔移民女性咨询处 (中区) 02-733-0120

南首尔移民女性咨询处 (铜雀区) 02-2038-0173

外国人生活・定居支援

首尔外国人居民服务中心 (综合支援) 02-2229-4900

首尔市全球青少年教育中心 02-2678-7191

首尔市外国人劳动者中心 02-3672-9472

法务部外国人综合服务中心 1345

DANURI呼叫中心 (多元文化家庭支援) 1577-1366



“이주민도 지역사회에 사랑 나눠요”

재한준머인연대, 산불 피해 이웃에 따뜻한 손길 전달

김포에 위치한 재한준머인연대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김포복지재단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재한준머인연대가 자체 행사에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했다.

재한준머인연대 대표 니킬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며, “저희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많은 분들께 따뜻한 도움을 받았기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모른 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포복지재단 조선희 대표이사는 “타지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준머인 분들께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이번 기탁에 큰 감동이다.”며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이웃 사랑의 실천이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포시는 이번 산불 피해 모금활동을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김포시청 민원실, 본관 1층 로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14개소)에 설치된 모금함 또는 지정 계좌를 통해 진행했다.

모금된 성금은 중앙모금회에 전달되며, 이재민의 생계 지원과 대피소 물품 제공,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22호점 김포반다비체육센터점 개소해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4월 23일 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에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사각지대에서 고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김포반다비체육센터점’ 운영을 개시한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김포반다비체육센터점은 돌봄 기능을 비롯한 교육·예체능·문화·체험활동 등 다채롭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분야별 전담 강사를 배치하는 ‘스포츠 특화프로그램’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자녀의 아침 돌봄 및 등하교 준비,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안심동행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포반다비체육센터점은 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내에 마련된 돌봄공간으로, 부모의센터이용시 돌봄센터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일시 돌봄 이용도 가능하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아동들에게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김포로 나아가기 위해 초·중·고 돌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현재까지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김포반다비체육센터점을 포함해 총 22개소의 돌봄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지은 기자

김포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예정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지연 신고, 미신고, 거짓 신고 등 위반 사항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포함)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은 제도기간인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교육 취약계층에 평생학습 기회 제공

김포시, ‘평생교육이용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김포시는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 소외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유형은 ▲일반(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노인(65세 이상) ▲디지털교육 수요자(30세 이상)이며, 총 900여 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35만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이 지급되며,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기관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24일(목)부터 5월 14일(수)까지이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정부24의 ‘보조금24’

를 통해, 일반 평생교육이용권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gyeonggi)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노인 등 기타 분야 평생교육이용권의 신청은 6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최종 선발자는 중복수혜 여부 등을 검증한 후 NH농협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올해 12월 말까지 강좌 수강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 1544-6500), 국가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 1600-3005) 또는 김포시 교육청소년과(031-980-5151)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대곶면문화복지센터 개청식...행정·복지·문화·여가 기능 통합으로 더 나은 가족서비스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조미정)가 확장 이전한 김포 최초의 복합문화청사인 대곶면문화복지센터가 4월 25일 개청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했다.

식전 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제막식 ▲기념식수 ▲시설 투어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복합청사 개청은 대곶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진행됐다.

또한 현장에서 대곶면문화복지센터의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안내가 함께 이루어져, 주민들이 직접 센터를 둘러보고 앞으로 제공될 문화·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해

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대곶면문화복지센터는 행정·복지·문화·여가 기능이 통합된 김포시 최초 복합청사로 단순한 청사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게 될 전망이다.

더 넓고 쾌적한 김포시가족센터

대곶면문화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김포시가족센터는 넓어진 공간을 활용해 가족 상담실, 교육실, 공동육아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더욱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사업, 육아나눔터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은 기존 구래동의 가족센터와 함께 개편 운영하게 되며, 올해 처음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학교 정규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부양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이혼위기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에 대한 ‘온가족보듬사업’

을 추진한다. 김포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31-996-5920

여러 시설 한 곳에서 이용해 편리

김병수 시장은 이날 청사를 둘러보며 “김포시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수영장, 도서관까지 한 곳에 있으니 앞으로 ‘면사무소에 일 보러 간다’가 아니라 ‘문화복지센터에 놀러 간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될 것 같다”며 “오늘 이 대곶면문화복지센터가 사람을 잇고 세대를 잇고 문화를 이어주는 대곶면의 중심공간이 되길 바란다. 문화와 복지, 행정이 하나 되는 이곳에서 시민의 일상이 풍성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이번 개청식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알린 대곶면문화복지센터가 지역주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으로 앞으로 더욱 활발히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김포시와 대곶면은 주민이 체감하는 편의와 만족을 최우선으로 삼고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의 생활 친화적 독서공간, 대곶작은도서관도 이용해요”



김포시는 지난 25일 대곶면문화복지센터를 개관하며 3층에 대곶작은도서관을 재개관했다.

김포시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도 자녀들과 함께 작은도서관에 방문해 자녀가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대곶작은도서관은 2011년 2월 1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곶초등학교 내에서 운영되었으며, 이번 대곶면문화복지센터 개청에 맞춰 도서관 장소와 시설을 이전하여 새롭게 개관한다.

새롭게 개관하는 대곶작은도서관은 276㎡ 규모로, 개관을 기념하여 도서 4,800여 권을 추가해 총 23,504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책을 읽고 휴식할 수 있는 개방형 열

람 공간을 갖추었다. 도서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도서 열람 공간 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유아 공간과 인터넷을 위한 PC가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연령층과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김병수 시장은 “대곶작은도서관은 생활 친화적인 독서공간으로, 같은 건물 내의 행정복지센터, 가족센터, 체육시설과 함께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송하성 기자